

한국속의 중국, 중국속의 한국

1주차

장영덕 교수
인하대학교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K학술확산연구센터
K-ACADEMIC DIFFUSION RESEARCH CENTER

01

과목소개

본 과목은 한국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중국의 문화적인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중국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한국의 문화적인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두 나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만큼 교류의 흔적을 찾아보는 것은 한중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본 과목을 통해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오랜 교류의 결과로 남아 있는 문화적인 요소를 확인함으로써 국가 간 교류에서 문화교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며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02

키워드

- 문화
- 공공외교
- 소프트 파워
- 문화외교
- 문화교류



03

주차별 구성

1주차	문화, 문화외교, 공공외교
2주차	한중관계와 문화교류의 조건
3주차	한국 속의 중국 - 유교문화
4주차	한국 속의 중국 - 차이나타운
5주차	한국 속의 중국 - 한자, 신앙, 차, 음식
6주차	중국 속의 한국 - 고대1
7주차	중국 속의 한국 - 고대2
8주차	중국 속의 한국 - 고려~조선
9주차	중국 속의 한국 - 근현대
10주차	중국 속의 한국 - 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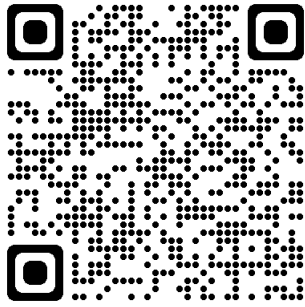
04

강의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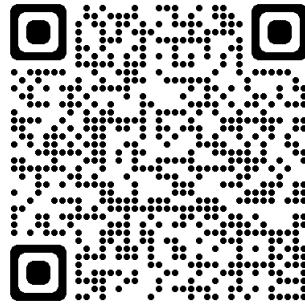
강의

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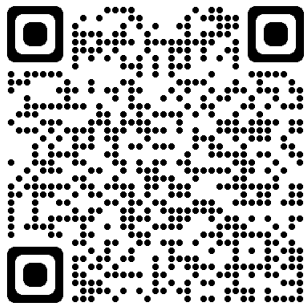
1주차 영상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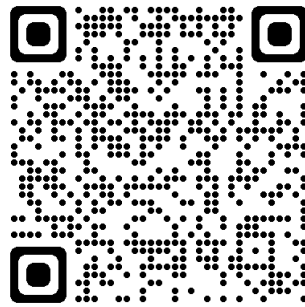
1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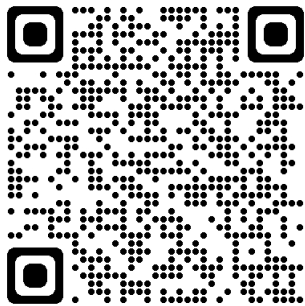
2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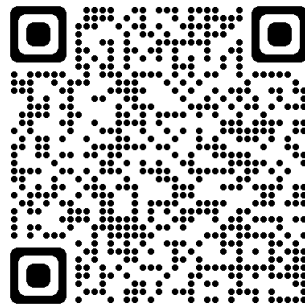
3차시



4차시



5차시



6차시

강의



문화, 문화외교, 공공외교

1-1 강의소개

이번 수업은 문화와 문화 외교 그리고 공공 외교 등에 대해 알아보고 국가 관계에서 문화가 왜 중요한지 학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공공 외교의 의미와 함께 공공 외교에서 문화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학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수업을 통해서 문화와 문화 외교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문화의 중요성에 관해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공공 외교는 무엇이고 공공 외교와 문화의 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국 속의 중국 그리고 중국 속의 한국이라는 내용을 공부하게 될 장영덕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 강의는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한국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중국의 문화와 또 중국 속에서 만날 수 있는 한국의 문화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강의를 지켜보고 계신 분들 모두 잘 아시겠지만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인접해 있으므로 역사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많은 영역에서 오랜 기간 다양한 방식의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다시피 양국은 여러 차례 전쟁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양국은 지금까지도 다양한 영역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또 교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나라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므로 오랜 기간 인적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인적 교류는 또한 문화를 교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사람을 문화의 집약체 혹은 문화의 전달체라고 생각해본다면 사람의 이동이 곧 문화의 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이동이 문화를 이동할 수 있게 했던 것이죠.

이 서로 다른 문화에 속한 사람이 교류하면서 자연스럽게 상호 간 문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화 교류를 통해 두 나라는 상대방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오랜 기간 교류를 지속해 온 만큼 다양한 문화의 교류가 있었고 또 상호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가 문화적으로 상호 많은 영향을 미쳤던 만큼 각 나라에는 문화 교류의 흔적으로서 서로의 문화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함께 생각해볼까요? 먼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중국의 문화는 뭐가 있을까요? 아마 다들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중국의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이 남아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유교와 한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중국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에는 이 유교적 문화가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한자는 지금도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국의 문자입니다. 이외에도 중화권에 해당하는 중국 대륙이나 홍콩 그리고 마카오, 대만, 이외의 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그리고 대만인 화교들이 집단으로 모여 사는 차이나타운도 있습니다. 이 차이나타운은 중화권 사람들의 문화를 잘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중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이 중국에 남아 있는 한국의 문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고대부터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건너간 문화가 중국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동북 지방에 남아 있는 고구려 유적지들이 있고요. 또 인적 교류의 흔적으로서 중국 대륙에서 활동했고 또 명망을 얻었던 신라 시대 최치원이나 조선 시대 김정익, 허난설헌 등의 인물이 있습니다. 또한 이 중국의 동남쪽에 위치한 푸젠성에 취안저우라는 곳에는 이 신라와 고려라는 이름이 붙은 지명이 많이 남아 있어 이 당시 대륙과 한반도에 교류가 얼마나 활발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1992년 이후에는 한국의 대중문화가 중국에 건너가 큰 인기를 끌면서 한류가 시작되었고 지금도 많은 중국인이 한국의 K-POP이나 드라마, 화장품, 음식 등 한국의 다양한 대중문화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예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들이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더 많은 문화 교류의 사례와 흔적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두 나라는 오랜 기간에 교류를 통해 문화적으로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본 강의는 이처럼 한국과 중국에 남아 있는 문화 교류의 다양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문화 교류가 가진 의미를 되짚어 보고 또 문화 교류가 국가 간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작용을 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이 국가 간 정치적 교류나 경제적 교류도 물론 매우 중요하지만 문화 교류는 이 두 나라의 국민 간 상호 이해를 높임으로써 상호 존중에 기반을 마련하기 때문에 두 나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문화 교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한국에서는 반중 정서가 증가하고 있고 반대로 중국에서는 혐한 정서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증가하는 반중 정서 그리고 혐한 정서 등의 이 문제 역시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오해에서 촉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 교류가 중요한 것이고 상대방 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본 강의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 있었던 문화 교류에 대해 알아보는 만큼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 문화 교류가 왜 중요한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간 관계에서 문화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또 문화 교류와 함께 외교의 한 축으로서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공공 외교란 무엇인지 그리고 공공 외교에서도 문화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한국과 중국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교류를 이어왔는지 한중 관계, 역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장구한 한중 관계 역사 속에서 문화 교류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에 남아 있는 중국의 문화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유교와 한자, 차이나타운 등이 있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는 반대로 중국에 남아 있는 한국의 문화에 대해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고대부터 지금 현대까지 시대별로 중국에 남아 있는 한국의 문화를 추적함으로써 중국 속의 한국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속의 중국 그리고 중국 속의 한국이라는 강의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보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본 강의는 전반적으로 이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풀어갈 예정이니 어렵지 않게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강의 첫 시간으로 우리가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기 전에 간단하게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문화란 도대체 무엇인지 이야기해보고 문화 교류가 국가 간 관계에서 왜 중요하고 또 문화가 가진 힘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 국제 관계에서 더욱 중요해지는 공공 외교에 대해 논의해볼 텐데요. 특히 이 공공 외교에서 문화가 왜 중요한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공공 외교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문화외교, 공공외교

1-2 문화란 무엇인가

그럼, 문화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문화라는 단어를 주변에서 쉽게 듣기도 하지만 또 쉽게 사용합니다. 누군가와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쉽게 등장하고요. 언론을 통해서도 무슨 무슨 문화라고 자주 언급되고는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문화 예술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문화는 문학이나 음악 그리고 그림, 이런 예술적인 측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술을 소비하는 것을 두고 문화생활을 한다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할 문화는 이처럼 예술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협소한 의미보다는 훨씬 넓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 협소한 의미로서 문화 외에도 우리는 일상에서 문화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통문화, 대중문화, 한류 문화, 서양 문화, 청소년 문화 등이 그런 예겠죠. 이처럼 우리는 문화라는 단어를 쉽게 사용하고 있지만 정작 이 문화는 무엇이다, 라고 정확하게 정의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는 이 문화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과 너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문화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다양하고 그 의미도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리적으로 지역마다 아니면 나라마다 해당 지역과 나라에 문화가 모두 다르므로 이 문화에 대한 정의도 모두 다를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또 시대마다 모두 다른 문화적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문화는 또 무엇이다, 라고 정확하게 한 문장으로 정의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문화를 어떻게 정의하고 또 이해해야 할까요? 우선 문화라는 단어의 어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문화가 영어로 'Culture'라고 표현합니다. 이 문화의 어원은 '밭을 갈아서 경작한다.'라는 뜻의 라틴어 'Cultus'에서 비롯하였습니다. 문화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Culture'가 바로 라틴어에 'Cultus'에서 비롯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틴어 'Cultus'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인 행동과 반대되는 문명화된 행동이라는 의미로 바뀌게 되었고요. 시간이 더 지난 후에는 상류 계급의 행동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19세기가 되면 훌륭한 예술이나 음악 그리고 사상에 대해 가르치는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게 되면 이 문화의 개념은 대중문화의 발달과 함께 세련되고 교양 있는 그리고 고급스러움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생활 양식을 가리키는 폭넓은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이렇게 문화의 어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문화의 의미는 시대에 따라 많이 달라졌는데요. 우선 문화의 의미는 크게 좁은 의미로서 문화와 그리고 넓은 의미로서 문화, 2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좁은 의미의 문화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학이나 예술 분야와 관련된 의미로 사용하는데요. 정신적 혹은 물질적으로 진보된 상태나 세련되고 교양 있는 모습을 우리는 문화라고 합니다. 쉬운 예로 문화인, 문화생활, 문화 시설, 문화 행사, 이런 표현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 뉴스에 문화 카테고리도 이 좁은 의미로서의 문화에 속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폭넓은 의미로서의 문화입니다. 넓은 의미로서의 문화란 한 사회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독특한 생활 양식을 의미하며 사회 구성원이 후천적으로 학습을 통해 공유하는 행동 양식과 그리고 사고방식 등을 말합니다. 좁은 의미로서 문화보다는 이 문화가 포함하는 대상이 매우 다양한데요.



예를 들면 전통문화, 청소년 문화 혹은 기독교 문화, 한국 문화, 서양 문화, 대중문화, 이런 표현이 다 이 넓은 의미로서의 문화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화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이 문화는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나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가 곧 한 사회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독특한 생활 양식이자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인간의 모든 행동을 문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이 문화인 것과 그리고 문화가 아닌 것은 어떻게 다르고 또 구별할 수 있을까요? 먼저 문화인 것이라고 한다면 앞서 설명한 넓은 의미로서의 문화 개념과 일맥상통합니다.

즉, 이 사람이 후천적으로 학습한 행위가 공통된 생활 양식 그리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인 생활 양식을 우리는 문화인 것으로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식사할 때 이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이나 어른을 보고 인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문화적인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은 후천적으로 학습된 것이고 또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생활 양식이죠.

반면 문화가 아닌 것은 이 인간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천적인 학습에 의한 것이 아닌 선천적인 특성이나 그리고 생물학적 본능, 욕구에 의한 행동, 개인적인 취향이나 습관 또는 버릇에 의한 행동 그리고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행동 등을 가리킵니다. 쉬운 예로 배가 고플 때 음식을 찾는거나 아니면 졸려서 하품하는 행동 혹은 개인적으로 말을 더듬는 것은 인간의 본능에 의한 것이거나 혹은 개인의 습관으로 인해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은 우리가 후천적으로 배워서 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즉, 인간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특성이나 아니면 생물학적인 본능에 의한 것을 가리켜 우리는 문화라고 하지 않으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구성원이 후천적으로 학습한 생활 양식을 우리는 문화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문화의 구성 요소에 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물질문화와 그리고 비물질문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물질문화란 이 물질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이 생활에 필요한 것을 충족하기 위해 창조해낸 물질적인 측면 즉,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형상을 갖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문화는 인류가 출현한 이후 생겨난 문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인류학에서는 이런 물질문화에 관한 연구가 오래전부터 있어서 왔습니다.

예컨대 이 영국의 인류학자 타일러는 문화는 관습, 신앙 등은 물론이고 손도끼, 쟁기 등의 구체적인 사물뿐만 아니라 불을 피우는 것 고기잡이 등의 기술까지 포함하는 인간 고유의 사물과 사건들을 가리킨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주와 관련한 모든 것이 물질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학자인 폴란드 출신의 말리놉스키라는 사람은 이 물질문화는 모든 문화 요소에 있어 반드시 존재하는 하나의 조건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물질문화를 다른 문화 요소와 분리해서 연구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는 달리 비물질문화는 인간이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여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이루어낸 정신적이고 그리고 관념적인 문화를 가리킵니다. 이 설명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비물질문화는 물질문화와는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비물질문화는 크게 제도적인 요소와 관념적인 요소, 두 가지 요소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요. 먼저 제도적인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물질문화 중 이 제도적인 요소라는 것은 단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사회적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범 문화라고도 불립니다.

이 사회 구성원들의 행위를 규제하거나 아니면 관계를 규정하는 규범 혹은 이 원리를 말하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전체로서의 사회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와 습관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도적 요소, 예를 들면 가족 제도, 혼인 제도나 친족 제도, 정치 제도, 경제 제도, 법률 제도나 교육 제도 등 사회 구성원에게 행동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관념적 요소입니다. 이 관념적 요소는 상징 문화를 말하며 사람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또 정신적인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지식과 가치 그리고 태도 등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신화나 철학, 문학, 종교, 예술, 윤리, 신앙, 언어 등 인간이 자기 자신이나 자연, 사회 등에 대하여 지니는 관념적인 것들을 가리켜 우리는 비물질문화에 관념적 요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환경적인 제약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용기와 의욕을 고취하고 사람이 살아가야 할 어떤 궁극적인 목표나 행위,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종교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종교는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 어떤 삶의 목표나 행위의 옳고 그름 등 가치관의 측면에서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정리해보면 이 형체가 있는 물질문화든 아니면 형체가 없는 비물질문화든 이 문화라는 것은 모두 사람이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이 사람이 다양한 환경 속에서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죠.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문화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이 후천적으로 학습한 생활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화는 각 사회 구성원에 의해 전달하고 또 지켜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마다 모두 독특한 문화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형성된 문화는 또 쉽게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고 또 중국에는 중국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화적 차이는 상호 이해를 어렵게 하기도 하며 나아가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문화, 문화외교, 공공외교

1-3 문화의 힘과 소프트파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인이었던 백범 김구 선생님은 자신의 자서전인 『백범일지』 말미에 나의 소원이라는 유명한 논문을 덧붙였습니다. 아마 이 ‘나의 소원’에 대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이 ‘나의 소원’은 김구 선생님의 정치 철학과 사상을 밝힌 논문으로 이미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글에서 김구 선생님이 문화의 힘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가장 많이 알려진 부분일 텐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이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김구 선생님은 우리 문화의 힘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와 남의 행복에 기여할 것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물론 이 김구 선생님은 문화의 힘이 개인적인 행복만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

다. 조금 더 읽어볼까요? “인류가 현재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또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함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하면 현재 물질력으로 20억이 다 편하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대항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문화의 힘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와 남에게 행복을 줄 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자비와 사랑의 정신을 배양하는 것도 오직 문화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김구 선생님은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런 높고 새로운 문화에 근원이 되고 또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고 글을 잇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막강한 군사력이나 경제력보다 높은 문화의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중반 이후 국제사회에서 공공 외교의 역할과 중요성이 많이 증가하면서 문화의 중요성 또한 증가한 것을 보면 김구 선생님의 주장은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한국에 경우 이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미국이나 중국, 일본과 같은 주변 강대국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만큼 높은 문화의 힘을 갖는다는 것은 이들과 경쟁하고 또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K-POP이나 K-드라마, K-food 같은 이 한국의 문화는 K-culture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으며 또 전 세계 많은 사람이 한국의 문화를 소비하는 것을 보면 21세기 한국은 김구 선생님이 '나의 소원'에서 바랐던 높은 문화의 힘을 이미 가졌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김구 선생님이 바랐던 이 높은 문화의 힘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K-culture를 생각해보면 문화의 힘은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류를 시작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이 한국의 전통문화와 대중문화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크게 격상하였고 한국을 일약 대표적인 문화 강국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사실 한류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중국과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 지역을 시작으로 확산하기 시작했었는데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서구권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심지어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꽤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해외여행을 가면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으로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존재감은 크게 약했습니다.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상상이 안 되겠죠.

지금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직접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이나 이 김치나 불고기 등 한국 음식을 찾는 외국인들도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BTS 팬덤은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고 오징어 게임이나 기생충 같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며 이 한국 콘텐츠의 위상을 확인해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문화의 힘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소프트파워'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마 많은 분께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는 이 문화의 힘을 이야기할 때 문화가 가진 힘을 가리켜 이 '소프트파워'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1990년 때 초 이 냉전이 끝나자 세계 대전과 같은 대규모 전쟁의 위험은 사라졌고 세계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이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소프트파워가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도록 할까요? 소프트파워는 한자식 표현으로 연성 권력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인 정의에 따르면 이 소프트파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상대방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능력으로 일종의 매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싶도록 하는 능력이 바로 소프트파워인 것이죠. 이 공공 외교 분야에서 유명한 학자인 안 멜리센은 그래서 이 소프트파워를 마음을 장악하는 힘 혹은 의견을 장악하는 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소프트파워와 대비되는 개념인 하드파워는 군사력 아니면 경제력, 자원 등 상대의 이익을 위협하는 강압적인 능력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방식을 말합니다.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었던 냉전 시기에는 당연히 이 하드파워가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는 전쟁의 위험이 많이 감소하면서 하드파워의 중요성과 함께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죠.

소프트파워라는 개념을 처음 소개한 사람은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이자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의 석좌 교수였던 조지프 나이라는 사람입니다. 조지프 나이는 1980년대 대두하였던 미국 쇠퇴론에 대해 반박하면서 1990년 처음으로 이 소프트파워 개념을 소개합니다. 나이는 당시 미국의 국력이 쇠퇴하고 있지만 이것은 상대적인 쇠퇴일 뿐이지 미국은 하드파워 외에도 강력한 소프트파워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볼까요? 1980년대 미국은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소련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군사비 지출을 확대하고 있었고요. 감세 정책을 국내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며 또 세계적인 석유 파동의 후유증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생산의 감소화, 실업률 증가도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미국 쇠퇴론은 이런 상황 속에서 등장한 논리입니다.

예일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였던 폴 케네디는 미국의 쇠퇴를 언급한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조지프 나이는 1990년에 'Bound To Lead'라는 저서를 처음 소개하면서 처음으로 소프트파워 개념을 제시하게 됩니다. 미국 쇠퇴론을 반박한 이 책은 힘의 본질이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미국이 여전히 글로벌 리더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미국의 강력한 소프트파워를 제시한 것이죠.

나이는 이 미국의 외교 전문 저널인 '포린 폴리시'에 소프트파워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며 이 소프트파워에 대한 개념과 논의를 구체화하였고요. 이 2004년 역시 소프트파워라는 제목의 저서를 출간하면서 소프트파워 개념을 더욱 심화, 발전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나이는 하드파워만으로는 이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국제 문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 소프트파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조지프 나이는 소프트파워를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이 세 가지, 실제적인 형태를 보이는 일종의 자원으로 분류합니다. 여기에서 이 세 가지 실제적인 형태란 정신적인 가치, 문화 그리고 외교 정책을 말합니다. 먼저 정신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정신 속에 학습된 도덕이나 사회 규범, 윤리, 민주주의 등의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문화입니다. 문화는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지만 문학이나 예술 등의 좁은 의미의 문화와 함께 한 사회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독특한 생활 양식을 가리키는 넓은 의미의 문화를 모두 포괄합니다. 세 번째 형태는 바로 한 국가의 외교 정책입니다. 외교라는 것이 결국 자국의 정치적 목적이나 이익을 위하여 다른 나라에 취하는 평화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이 국가 차원의 외교 정책 역시 소프트파워의 중요한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프트파워의 이 세 가지 실제적인 형태 중 대중들에게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자원이 바로, 이 문화력입니다. 높은 수준에 문화라고 하는 이 매력을 통해 다른 나라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이 소프트파워는 미국과 같은 강대국에서도 중요하지만 한국이나 이 기타 제삼 세계 국가와 같이 중소 국가에는 더욱 가치가 있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이 하드파워인 군사력과 경제력만으로는 강대국과 맞설 수 없지만 이 자국의 소프트파워를 통해 국가 이미지를 고양하고 또 이를 통해 국가 간 외교나 경제 교류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한 국가의 소프트파워는 단기간에 축적하거나 형성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고유한 정체성과 그리고 유고한 문화적 전통, 사상 등이 어우러져서 나타나는 고유한 매력이 바로 소프트파워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이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 소프트파워가 문화 외교 나아가 정부와 민간 부문이 함께 추진하는 공공 외교와도 밀접하게 연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프트파워는 실제로 문화 외교에 가장 기초적인 단위로서 글로벌 무대에서 이 공공 외교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던 2022년 4월, 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권위 있는 대중음악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드에 영상으로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열한 전쟁 중에도 대중음악의 힘을 빌려 국가가 처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전 세계인들로부터 지지를 얻으려는 모습이 이 소프트파워가 공공 외교에 어떻게 연계하는지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한류 역시 성공적인 한국에 공공 외교를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 문화외교, 공공외교

1-4 공공외교란 무엇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이 문화와 문화가 가진 힘 등에 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공공 외교의 중요성 또한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공 외교 역시 문화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공공 외교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공공 외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외교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공공 외교의 의미에 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 외교부 홈페이지에는 공공 외교란 외국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에 역사, 전통, 문화, 예술, 가치, 정책, 비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외교 관계를 증진하고, 그리고 우리의 국가 이미지와 국가 브랜드를 높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높이는 외교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외교란 정부 간 소통과 협상 과정을 일컫는 전통적 의미의 외교와 대비하는 개념으로 문화, 예술, 원조, 지식, 언어, 미디어, 홍보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외국 대중에게 직접 다가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 감동을 줌으로써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공공 외교의 기본 콘셉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공공 외교는 주로 외국의 대중을 그 대상으로 하지만 여기에 더해 비정부기구인 NGO와 대학 등 교육 기관, 언론 등도 우리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공공 외교 대상에 포함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외교 정책에 대한 자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자국민과 자국 내 여러 단체 및 기관도 공공 외교의 범주에 포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 외교는 어떤 기준에 전통적 의미의 외교와 비교했을 때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 의미의 외교는 이 외교의 주체가 중앙 정부이며 통상적으로는 이 A 국 정부와 B 국 정부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외교의 영역도 정무 그리고 안보 외교, 경제 외교가 외교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교 행위의 주체와 대상으로서 전통 외교에서는 중앙 정부가 유일한 외교의 주체이자 대상이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공공 외교의 경우 이 외교의 주체와 대상이 전통 외교와 달리 매우 다양합니다.

먼저 외교의 주체를 보면 이 공공 외교의 주체는 중앙 정부를 포함하여 다양한 민간 단체라든가 심지어 일반 개인까지 외교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공공 외교의 대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국 중앙 정부를 포함하여 외국에 일반 대중과 그리고 NGO, 대학, 언론 등이 또 모두 포함합니다.

이 외교 행위의 주체를 보더라도 공공 외교는 중앙 정부를 포함하여 다양한 민간 단체, 심지어 개인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전통 외교의 성격이 이 폐쇄적인 비밀 외교였다면 현대적 의미의 공공 외교는 개방과 참여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공공 외교는 정무 그리고 안보, 경제 외교와 더불어 외교의 세 번째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공공 외교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외교부 공공 외교 문화국 디지털 공공 외교 과에서 제작한 짧은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레이션 : 공공외교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전통적 외교가 정부 간 소통과 협상의 과정을 의미했다면 공공외교는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민과 함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외교 활동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군사적 개입, 강압적 외교, 경제 제재 조치 등의 물리적 힘이 중심이 되는 하드파워 대신 매력을 통해 상대방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소프트파워가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호감과 신뢰 형성을 추구하는 공공외교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0년 기존의 정무 외교, 경제외교와 함께 공공외교를 대한민국 외교의 3대 축으로 설정, 공공외교를 주요 외교정책으로 본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공공외교법을 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제1차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수립해 효율적인 공공외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통합적, 체계적인 공공외교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공공외교 활동 더 자세히 알아보까요?

우리나라는 한국의 다양한 매력 확산을 위한 문화 공공외교, 한국 바로 알리기에 힘쓰는 지식 공공외교, 한국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정책 공공외교를 3대 콘텐츠로 선정하고 분야별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세계 각국에서 한국 주간, 수교 및 주요 외교계기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전통문화, 케이팝, 영화, 드라마 등을 활용한 문화 공공외교를 통해 전 세계와 소통하며 한국을 알리고 한국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함께 한국어와 한국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하고자 하며 주요국 의회, 학회, 싱크탱크, 언론 등을 대상으로 우리 외교정책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 공공외교 활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대면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공공외교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원칙을 소개하는 TRUST 캠페인, 전 세계 127개국으로 확산되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연대와 지지를 촉구한 Stay Strong 캠페인 등 SNS,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공공외교로 공공외교의 지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공외교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는데요.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우리의 문화, 지식, 정책을 바탕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영덕 교수님 : 그러면 공공 외교 개념은 언제, 어떤 계기를 통해 생겨났을까요?

현재 우리가 아는 이 공공 외교 프로그램이 국가 차원에서 처음 운영된 것은 냉전 초기인 1953년 미국에 의해서입니다. 당시 미국에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대외 공보처를 설립하여 해외에서 미국 정부 그리고 민간 기관의 다양한 교육과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했던 것이 이 공공 외교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목적은 냉전 시기 다양한 정보 활동과 교육, 문화 교류를 세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전 세계에 이 미국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해외에 많은 미국 전문가를 미국으로 오게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이 미국 문화와 사회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즉, 미국에 우호적인 인적 자원을 양성하고 미국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한편 이 공공 외교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마찬가지로 냉전이 진행 중이던 1965년입니다. 당시 미국의 전직 외교관이자 터프츠 대학 플레처 스쿨에 학생이었던 에드먼드 걸리온이라는 사람이 ‘에드워드 머로우 공공 외교 센터’라는 것을 설립하면서부터 이 공공 외교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에드먼드 머로우라는 사람은 미국 방송, 저널리즘의 아버지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이 당시 공공 외교의 목적 또한 대외 공보처가 추구했던 미국에 대한 이 우호적인 여론의 형성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때를 기점으로 이 공공 외교가 외교의 한 형태로서 더욱 체계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시대적 특징을 살펴보면 공공 외교 개념의 등장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선 1960년대 미국은 베트남전의 패배로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이 약화하던 시기였고 그리고 유럽이나 일본이 부상하는 등 세계적으로 이 국제 정치 정세가 전환기를 맞이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미국이 가진 하드파워만으로는 이 글로벌 정치 경제 질서를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 세력이 쇠퇴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던 미국은 자국이 선호하는 이 세계 질서를 유지하고 또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하드파워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세계 각국의 인식이나 세계 여론에 민감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후 미국 학회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공공 외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시작하였고 이 공공 외교는 외교에 중요한 영역으로 편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초반 이 냉전이 종식하면서 공공 외교에 대한 논의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이나 통신 수단에 혁명이나 발전은 이 국제 정치 사안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의견 표출을 활발하게 만들었고 또 여론을 중시하는 공공 외교의 중요성 또한 많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 2001년 발생한 9·11 테러나 글로벌 금융 위기 등 군사력과 경제력 중심의 하트파워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인식도 이 공공 외교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외교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외교에 패러다임으로서 이 공공 외교가 재조명되기 시작하였고 하드파워와 함께 소프트파워의 중요성도 또한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문화, 문화외교, 공공외교

1-5 공공외교와 문화외교

공공 외교의 정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공공 외교는 전통 외교와 달리 문화 예술이나 지식, 언어, 이 미디어 등에 다양한 수단을 활용합니다. 이런 수단을 하나의 매력으로 활용함으로써 외국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또 감동을 줌으로써 자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수단이 바로 앞서 언급했던 소프트파워입니다.

우리는 앞서 소프트파워를 이야기할 때 이 소프트파워에 세 가지 실제적인 형태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형태가 바로 문화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전통문화나 대중문화를 막론하고 이 문화야말로 소프트파워의 핵심 자원인데요. 소프트파워가 공공 외교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핵심 요소라고 한다면 이 소프트파워의 핵심인 문화가 결국 공공 외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공공 외교와 소프트파워 그리고 문화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의 관계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이 21세기를 가리켜 문화의 세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문화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소프트파워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으므로 이 21세기를 또한 소프트파워의 시대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에 강대국과 약소국을 또한 막론하고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자국이 가진 이 소프트파워 자원을 활용하여 어떻게 하면 소프트파워를 극대화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소프트파워를 활용하고 또 극대화하기 위해 소프트파워를 담아내는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자세히 설명했던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공공 외교입니다. 각 국가는 이 외교의 한 축인 공공 외교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소프트파워를 활용합니다. 두 번째는 공공 외교와 비슷한 개념 혹은 하위 개념으로서 인식되는 문화 외교입니다. 문화 외교는 이 문화를 수단으로 하거나 주체로 하는 외교 활동으로 문화가 소프트파워의 구성 요소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문화 외교 역시 소프트파워 담론을 담아내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가 브랜드입니다. 국가 브랜드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 세 가지 개념 중에서 문화 외교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문화 외교와 공공 외교는 매우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개념을 혼용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엄밀한 차원에서 이 문화 외교라는 것은 문화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이 공공 외교에 하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 외교는 또 무엇일까요?

먼저 문화 외교에 정의입니다. 문화 외교 연구자들 사이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문화 외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문화 외교란 정부 기구 혹은 정부 기구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이 다른 나라에 정부와 국민을 대상으로 예술, 지식, 정보, 언어 그리고 제도 등을 수단으로 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자국에 국가 이미지 제고 등에 이 소프트파워를 높이기 위한 활동이 바로 이 문화 외교입니다. 이 정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문화 외교에 주체는 정부 기구 혹은 정부 기구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이고 여기에서 문화 외교의 수단은 예술이나 지식, 정보, 언어 등이며 또 이 대상은 다른 나라에 정부와 국민이 됩니다. 또한 문화 외교 목적은 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 소프트파워를 높이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이 문화 외교의 주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 외교의 주체는 사실 훨씬 다양하고 광범위합니다. 여기에는 이 민간 단체를 포함하여 일반 개인까지도 포함되는데요. 이처럼 문화 외교에는 이 민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문화가 가진 속성 때문입니다. 물론 문화 외교도 이 외교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화 외교는 고급문화이건 아니면 대중문화이건 반드시 높은 수준의 문화적 소양을 보유한 사람의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 외교관의 능력만으로 자국의 문화 역량을 대변할 수도 또 전달할 수도 없습니다. 문화 외교의 주체가 이 문화적 소양이 없는 사람이라면 상대국과의 문화 교류에서 상대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이는 국가 간 문화 교류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 간 문화 외교 활동에는 이 문화적 식견이 탁월한 민간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런 측면에서 민간 부분과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문화적 창의성이나 발현은 국가의 개입보다는 민간의 자발적인 동기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에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민간은 국가가 수행하는 외교의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거나 대신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국가와 완전히 별개의 주체로서 독자적인 외교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수행하는 의미가 결코 아니죠.



문화 외교는 또한 이 국가에 경제 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는 문화의 속성상, 이 문화 외교가 한 나라의 문화 상품을 수출하는 데 크게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의 발달로 이 문화의 소비가 많이 증가하였고 소비의 방법 또한 매우 편리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K-POP을 비롯해서 K-드라마, K-뷰티, K-게임 등 다양한 한국의 대중문화는 외교의 수단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성과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2021년에는 한국의 콘텐츠 수출액이 무려 14조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4.4% 대비한 수치인데요.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이었던 가전이나 이차 전지, 전기차, 디스플레이 패널 등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였습니다. 그만큼 이 문화 상품이 갖는 경제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21세기를 가리켜 문화의 세기라고 표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문화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냉전이 끝나고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하면서 국가 간 문화 교류 또한 빠르게 증가하였고 특히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이런 현상을 더 강하게 추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의 영향력은 많이 증가하였고 문화적 영향력은 이 국력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영토나 인구, 자원 같은 경성 자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국은 절대로 이 강대국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화나 가치, 인적 자원 같은 이 연성 자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국은 이미 문화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한류의 영향을 한류의 영향력을 생각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있었던 K-POP 월드 페스티벌이라는 짧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우선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느 대륙인지를 막론하고 전 세계 사람이 K-POP에 열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한국의 국가 이미지 상승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 불러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문화, 문화외교, 공공외교

1-6 공공외교의 중요성과 문화교류

끝으로 공공 외교의 중요성과 그리고 문화 교류에 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한국 국제 교류 재단은 일반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공공 외교 대국민 인식 조사라는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우선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의 7명은 이 공공 외교의 중요성과 취지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약 69%가 공공 외교의 정책의 기대 효과로 국가 이미지 제고에 도움 된다고 답하였습니다.

또한 공공 외교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약 44%에 이르는 등 이 공공 외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 외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은 곧 이 공공 외교가 그만큼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 주요 국가는 이 공공 외교를 매우 중시하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개 국가에 공공 외교 사례를 통해 다른 나라는 어떻게 어떤 내용의 공공 외교를 수행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공공 외교입니다. 앞서 공공 외교 역사를 설명할 때 언급했었는데요. 미국은 현대적 개념의 공공 외교가 처음 탄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미국은 공공 외교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특히 2001년 9·11 사태를 계기로 전 세계적인 이 반미주의에 대응하고자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으로서 이 공공 외교를 더욱 강화하는 실정입니다. 미국은 또한 이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 유지를 위해 미국에 우호적인 여론의 형성과 그리고 자유주의, 인권, 민주주의 등 이 보편적 가치를 확산하는 프로그램으로 풀브라이트(Fulbright) 그리고 국제 지도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기존에 있었던 군국주의 이미지를 벗는 것과 그리고 1970년대 이후 경제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이 경제 동물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경제력에 버금가는 문화적 위상과 이 매력적인 이미지를 심기 위한 방편으로 공공 외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1990년대 이후 일본에 3대 외교 기축 중 하나로 문화 외교를 채택하였고요. 구체적으로는 '재팬핸즈'라든가 국제 교류 기금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1978년 개혁 개방을 시행한 이후 그 경제 성장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였는데요. 중국은 이런 경제 발전에 따른 중국 위험론에 대응하여 책임 대국론 그리고 평화 부상론 등을 발표하며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이미지를 확산하기 위해 공공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주요 대외 전략으로서 공공 외교를 채택한 바 있고요.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공자 아카데미와 공자 학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이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먼저 문화 외교에 눈을 뜬 나라이자 가장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2010년 전략 방향 위원회 그리고 2011년 인스티튜트 프랑스를 통해 통합적인 공공 외교를 수행하고 있고요. 특히 프랑스어의 보급을 중요한 외교 목표로 삼아 알리앙스 프랑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들 주요 국가 외에도 독일이라든가 영국, 캐나다 등의 국가도 이 공공 외교를 크게 중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교에 중요한 부분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상황은 어떨까요? 한국은 우선 2010년을 공공 외교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본격적으로 공공 외교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공공 외교를 정무 외교, 경제 외교와 함께 대한민국 외교에 중요한 축으로 격상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178개 재외 공간을 통해 현지에 관습, 문화, 외교 관계 등을 고려한 쌍방향 공공 외교를 전개하는 중입니다. 특히 한국어와 한국 문화 보급을 담당하는 세종학당을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중문화를 상징하는 한류는 한국 공공 외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한국은 이 물리적인 국가 규모의 측면에서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일본과 같은 강대국들과 어깨를 견주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공공 외교를 더욱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한국은 문화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한국 공공 외교의 현재 모습은 어떤지 그 이해를 돕기 위한 짧은 영상을 한 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 코로나19 위기로 촉진된 뉴노멀 시대, 외교도 빠르게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거리두기가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경을 넘어 소통하며 마음을 움직이는 외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고 있는 지금, 여러 많은 도전 속에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 외교 현장으로 가볼까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으로 개최됐던 2020년과 달리 2021년 국경일 리셉션은 초청대상을 축소하고 프랑스 보건 패스를 적용해 대면 행사로 열렸습니다. 이 같은 자리는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공공외교의 좋은 기회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게임을 체험해보기 위해서입니다. 소개된 놀이들은 승부를 가리기보다 놀이를 통해 친밀감을 느끼고 서로가 더욱 가까워지도록 구성된 전래 놀이들이네요. 성공했어요! 행사를 통해 참가자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며 궁금했던 한국문화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락다운으로 핀란드의 많은 공관들은 연중 가장 큰 행사인 국경일 리셉션을 비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이 주최한 제12회 중남미 케이팝 경연대회에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등 14개국의 221개 팀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습니다. 2021년은 한국이 OECD에 가입한 지 25주년을 맞은 해입니다. 한국 영화를 소개하면 대부분의 관객은 이게 한국 영화인 걸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강렬한 인상을 심어 준 것이죠.

2021년 김치 페스티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 김치의 날을 맞아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 관저에서 김치 축제가 열렸습니다. 김치를 먹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담그고 나누는 건 한국인의 정체성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 생각에는 김치는 김치만의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매운 음식을 좋아해서 그런지 김치가 정말 맛있네요.



2021년 광복절을 맞아 카자흐스탄에 묻혀 있던 독립 영웅의 유해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홍범도 장군님의 귀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공군이 안전하게 호위하겠습니다. 필승.”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은 오래전부터 카자흐스탄과의 관계 및 고려인 동포사회 설득이라는 외교력으로 얻은 성과이기도 합니다.

독일 통일 25주년을 기념해 2015년 포츠담 광장에 세워졌던 ‘통일정’ 정자를 한국대사관 정원으로 이전한 것을 기념하는 자리였는데요. 분단과 통일을 앞서 경험한 독일인들에게는 분단의 고통에 공감하며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었는데요. 2020년 5월, 코로나19로 심화되고 있는 혐오와 차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 외교부의 주도로 11개 유네스코 회원국과 함께 ‘연대 및 포용을 위한 세계시민 교육’ 우호 그룹이 출범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활동은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포용의 메시지를 확산하고 민주주의와 평화, 인류 공동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전 세계 시민들과의 우호 증진, 연대와 협력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콘텐츠로 소통하고 있는 대한민국 공공외교 그 진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영덕 교수님 : 영상에서처럼 한국의 다양한 문화는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세계적인 환영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 문화에 저력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처럼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주요 국가는 모두 공공 외교를 중시하고 있으며 또 공공 외교를 통해 자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국가는 공공 외교에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문화 교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처럼 일방향이 아니지 않습니다.



이 교류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쌍방향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좁은 의미로서 문화 교류가 예술 상품, 공연, 전통 공예품 같은 작품의 교환이라고 한다면 이 넓은 의미로서 문화 교류는 다양한 행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정보, 가치, 규범 등에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화 교류는 왜 중요할까요? 우선 문화 교류는 이질적인 문화 간의 접촉과 상호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서로 다른 문화의 접촉과 전파는 주로 국가 간의 정치적, 경제적 혹은 군사적인 지배와 피지배 관계에 확대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현대적 개념의 문화 교류는 다양한 문화 간의 기본적인 평등성과 상호성을 인정하고 또 국제 사회에 평화적 안정적인 발전과 국제적 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한 각종 활동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문화 교류가 평등성과 상호성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문화 교류에는 상하 위계질서가 없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측면에서 문화 외교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고도로 세계화된 현대 사회에서 자기만의 문화를 고수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시점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인간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다른 문화에 교류를 통해 자신의 문화를 발전해왔기 때문에 이 문화 교류는 인류의 발전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둘째, 문화 교류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높여 줍니다. 공공 외교의 정의를 보면 공공 외교는 외국 국민과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에 역사, 전통 그리고 문화, 예술, 가치, 정책, 비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외교 관계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바로 공공 외교와 외국 국민과의 직접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소통한다는 것은 공공 외교가 일방향적인 전달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통은 상호 양방향적인 것이지 단방향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 사람도 저마다의 문화와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문화의 교류가 가능해지고 외국 국민과의 직접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문화 교류는 이런 상호 이해의 증진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세 번째로 문화 교류는 한 나라에 사회 발전과 그리고 국가 간 교류에 있어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또한 문화 교류는 이 국가의 정치 및 경제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자 도구가 되기 때문에 문화 교류는 국가 간 정치적 유대를 위한 중요한 채널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측면에서 문화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은 이와 같은 문화 교류를 바탕으로 상대방에 대한 공공 외교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 사이에 있었던 다양한 문화적 교류를 살펴보는 것은 단지 과거에 있었던 문화 교류 사건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현시점에서 이 한·중 문화 교류의 의미를 확인하고 양국 관계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양국 간 문화 교류는 이 동북아 역내 문화 발전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양국 간 문화 교류에 대한 고찰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문화에 의미는 크게 좁은 의미로서의 문화와 그리고 넓은 의미로서의 문화,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좁은 의미의 문화란 문학이나 예술 분야와 관련한 의미로 사용하고 넓은 의미로서 문화는 한 사회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독특한 생활 양식을 의미하며 사회 구성원이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 공유하는 행동 양식과 사고방식 등을 가리킵니다. 소프트파워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상대방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능력으로써 일종에 매력이라고 할 수 있고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싶어하도록 만드는 능력이 바로 소프트파워입니다.

공공 외교란 외국 국민과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에 역사, 전통, 문화, 예술, 가치, 정책, 비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이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외교 관계를 증진하고 우리에게 국가 이미지와 국가 브랜드를 높여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높이는 외교 활동입니다.

또한 문화 외교란 정부 기구 혹은 정부 기구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이 다른 나라에 정부와 국민을 대상으로 예술, 지식, 정보, 언어, 제도 등을 수단으로 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자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 등 이런 소프트파워를 높이기 위한 활동입니다. 현대적 개념의 문화 교류는 다양한 문화 간의 기본적 평등성과 상호성을 인정하고 국제 사회에 평화적, 안정적인 발전과 그리고 국제적 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한 각종 활동을 의미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이 문화와 그리고 공공 외교, 문화 외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보았는데요.
지금까지 1주 차 수업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Lecture



Culture, Cultural Diplomacy, Public Diplomacy

1-1 Course Introduction

In this lecture, we will learn about culture, cultural diplomacy and public diplomacy, and why culture is important in national relations. We will also learn what this public diplomacy means and why culture is so important in public diplomacy. You will be able to explain what culture and cultural diplomacy is and also explain the importance of culture after this lecture. Finally, you will be able to explain what public diplomacy is and how public diplomacy relates to culture.

Hello, everyone? Nice to meet you. My name is Jang, Youngduk and I'll give you a lecture on 'China in Korea and Korea on China'. First of all, this lecture, as the title suggests, aims to learn about Chinese culture that can be encountered in Korea and Korean culture that can be encountered in China. As anyone who is currently watching the lecture knows, since Korea and China are geographically very close, they have historically maintained exchanges in various ways for a long time in many areas such as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Of course, as you well know, the two countries have gone through several wars also.

Nevertheless, the two countries are still maintaining close relations and exchanges in various fields. In particular, since the two countries are geographically adjacent, people-to-people exchanges have been possible for a long time, and people-to-people exchanges have also enabled cultural exchanges. If you think of this person as an aggregate of culture or a carrier of culture, the movement of people can be said to be the movement of culture. The movement of people allowed culture to move.

As people belonging to these different cultures interact, mutual cultural exchanges can occur naturally. And through such cultural exchange, the two countries are bound to be influenced by each other's culture. As Korea and China have maintained exchanges for a long time, there have been exchanges of various cultures and they have had a lot of influence on each other.

And as much as the two countries have had a lot of cultural influence on each other, each country has a lot of each other's culture as traces of cultural exchange. Then, let's think together. First of all, what kind of Chinese culture can we easily find around us? There are probably some things that everyone can easily think of. Various cultural elements of China remains, but among them, there are Confucianism and Chinese characters. It can be said that it is a Chinese culture that can be easily encountered in our daily life. As you all know, this Confucian culture remains very strong in Korea. Hanja' in Korean term is Chinese letters that are still used in many places. In addition, there are also Chinatowns where Chinese people living in mainland China, Hong Kong, Macau, Taiwanese and overseas Chinese live in groups. This Chinatown is also called Little China because it is preserving the culture of the Chinese people.

So, what are some of the Korean cultures that remain in China? Historically, from ancient times to the present, cultures that have passed from the Korean Peninsula remain throughout China. Representatively, there are Goguryeo ruins that remain in the northeast region of China. Also, as traces of human exchange, there are figures such as Choi Chi-won of the Shilla Dynasty, Kim Jeong-ik, and Heo Nanseolheon of the Joseon Dynasty, who were active in the Chinese continent and gained reputation. In addition, there are many place names with the names of Silla and Goryeo in Quanzhou, Fujian Province, located in the southeast of China, showing how active exchanges between the continent and the Korean Peninsula were at that time. And after 1992, when Korea and China established diplomatic ties, Korean popular culture crossed over to China and gained great popularity, and the Korean Wave began. Even now, many Chinese are consuming various Korean popular cultures such as Korean K-POP, dramas, cosmetics, and food.

The examples mentioned above are examples that we can easily come across. But if you look closely, you will be able to identify more cases and traces of cultural exchange. Like this, the two countries have been able to develop while culturally mutually influencing each other through exchanges over a long period of time. In this lecture, we will examine the various examples of cultural exchanges that remain between Korea and China in detail, review the meaning of cultural exchanges, and examine how important cultural exchanges are in relations between countries. Political exchanges and economic exchanges between these countries are of course very important, but since cultural exchanges build a foundation for mutual respect by enhancing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the peoples of these two countries, an understanding of this cultural exchange will be necessary above all else in order to maintain friendly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Especially, recently, anti-Chinese sentiment is increasing in Korea, and on the contrary, anti-Korean sentiment is increasing in China. This growing problem of anti-Chinese sentiment and anti-Korean sentiment can also be seen as being triggered by a lack of understanding or misunderstanding of each other's culture. That's why cultural exchange is important and a sufficient understanding of the other's culture is necessary.

This lecture can be divided into four main parts. First, as mentioned before, we will look at why this cultural exchange is important in a theoretical point of view, as we are going to take a look at the cultural exchange that took place between Korea and China. We will also explore why culture is so important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 addition, along with cultural exchange, we will look at what public diplomacy is, which has recently become more important as an axis of diplomacy, and why culture is important in public diplomacy. Second, then, let's take a closer look at Korea-China relations and history, how Korea and China have historically exchanged. Through this, we will discuss the meaning of cultural exchange in the long history of Korea-China relations. Third, let's take a look at specific examples of Chinese culture that remain in Korea. These include Confucianism, Chinese letters, and Chinatown, which I mentioned earlier. Finally, the fourth, on the contrary, will look at the Korean culture that remains in China through specific examples. In particular, we will try to find Korea in China by tracing the Korean culture that has been remaining in China historically from ancient times to the present.



So far, I have briefly introduced the lecture on China in Korea and Korea in China. As I said, this lecture will be focused on this specific case in general, so you will be able to listen without difficulty. And today, as the first lecture, I would like to briefly talk about the theoretical part before we look at specific cases. First of all, let's talk about what culture is, why cultural exchange is important in relations between countries, and about the power the culture has. And we will discuss about public diplomacy, which is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in modern international relations. In particular, let's talk a little more specifically about why culture is so important in this public diplomacy. In addition, let's talk about the overall content of public diplomacy.



Culture, Cultural Diplomacy, Public Diplomacy

1-2

What is culture?

Then, what is culture? We hear the word culture easily around us, but we also use it easily. It comes up easily in everyday conversation with someone. Even through the media, it is often referred to as a culture.

For example, we use the expression culture and art a lot in our daily life.

The culture here refers to the artistic aspects of literature, music, and painting.

So, we sometimes describe consuming art as living a cultural life. However, the culture we are going to talk about has a much broader meaning than any narrow meaning in terms of art. Of course, in addition to culture in this narrow sense, we use the word culture a lot in our daily life.

Examples include traditional culture, popular culture, Korean wave culture, Western culture, and youth culture. As such, we use the word culture easily, but it is very difficult to define 'what culture is' exactly. This may be because this 'culture' thing is so closely related to our daily lives. But above all, it is probably because culture is so diverse and its meaning is very broad. For example, geographic regions or countries will have different definitions of cultures because they all have different cultures in those regions and countries.

From a historical point of view, it is difficult to exactly define what culture is in one sentence because each era shows different cultural characteristics.

Then, how should we define and understand culture? First, let's take a look at the etymology of the word culture. We express the word munwha(문화) as 'Culture' in English.

The etymology of this word culture comes from the Latin word 'Cultus', which means 'to cultivate by plowing the field.' You can see that the English word 'Culture', which means culture, comes from 'Cultus' in Latin. And this Latin word 'Cultus' has changed over time to mean civilized behavior as opposed to natural behavior. After a while, it came to be used as a word to mean upper-class behavior. And in the 19th century, it began to be used for teaching about great art, music, and ideas. And in the 20th century, with the development of popular culture, the concept of culture is used not only in the sense of sophisticated, but also in a broad sense that refers to all human lifestyles. cultured and luxurious,

As it can be seen in the etymology of culture, the meaning of culture has changed a lot over time. First of all, the meaning of culture can be broadly divided into two categories: culture in a narrow sense and culture in a broad sense.

First of all, culture in a narrow sense is used in the sense related to literature or the arts, as I mentioned earlier. We call culture as a mentally or materially advanced state or sophisticated and cultured appearance. An easy example would be expressions such as cultural persons, cultural life, cultural facilities, and cultural events. And the culture category in news websites that we can easily access can also belong to this narrow meaning of culture.

Next is culture in its broadest sense. Culture in a broad sense refers to a unique lifestyle that is common in a society, and refers to the behavioral patterns and ways of thinking shared by members of society through learning. What this includes is a lot more diverse than the culture in a narrow sense.

For example, expressions such as traditional culture, youth culture, Christian culture, Korean culture, Western culture, popular culture, all belong to culture in a broad sense.

Considering the meaning of culture mentioned beforehand, this culture can be seen to exist anywhere where people live. This is because culture is a unique way of life and way of thinking common in a society.

However, not all of these human behaviors are called culture.

Then, how can we distinguish between what we call culture and what is not culture?

First of all, when we say that it is culture, then it has to do something with the culture in a broad sense as explained above. In other words, we call a culture a life style in which the learned behaviors of this person are common, and a life style that continues repeatedly. For example, using these spoons and chopsticks when eating, greeting elders when we encounter them, these are all cultural behaviors. These behaviors are learned and are also a repetitive and continuous lifestyle.

On the other hand, non-culture, even if it is human behavior, as mentioned above, refers to an innate characteristic not acquired by learning, behavior driven by biological instinct, desire, behavior based on personal taste, habit or habit, and temporary and accidental behavior.

Easy examples include searching for food when hungry, yawning when sleepy, or personal stuttering. They are behaviors that is caused by human instinct or by individual habits.

This kind of behavior is not called culture because it is not a behavior that we have to learn to do. In other words, we do not call culture when it refers to the innate characteristics of human beings or to those by biological instincts. And as I mentioned earlier, we call the life style acquired by members of society a culture.



Now let's move on to the components of culture. The components that make up culture can be largely divided into material culture and non-material culture. First of all, material culture, as you can see from the word "material", refers to the physical aspect created by human beings to meet the needs of life, that is, to have a visible physical form. Therefore, material culture can be said to be a culture that has been created since the appearance of mankind. And in anthropology, there has been research on this kind of material culture going on for a long time.

For example, British anthropologist Tyler said that culture refers to things and events unique to humans, including not only customs and beliefs, but also specific objects such as hatchets and plows, as well as skills such as lighting fires and fishing. In other words, everything related to basic human food, clothing and shelter can be referred as material culture.

Another scholar, Malinowski from Poland, emphasized that material culture is a condition that must exist for all cultural elements, and that we cannot study material culture in isolation from other cultural elements. Unlike this, non-material culture refers to the spiritual and ideological culture that humans have achieved to live by adapting to the given environment.

As you can see from this explanation, you can think of non-material culture as referring to the invisible part, unlike material culture.



And this non-material culture can be explained by dividing it into two elements: an institutional element and an ideological element. First, let's take a look at the institutional factor. Among non-material culture, this institutional element is related to social institutions, as it can be seen from the word. That is why it is also called as normative culture. This is because it refers to the norms or principles that regulate the behavior of members of society or regulate relationships, and refers to the systems and habits that maintain social order and enable the operation of society as a whole. And these institutional elements, such as the family system, marriage system or kinship system, political system, economic system, legal system or education system, play a role in presenting standards of behavior to members of society.

Next is the ideological element. This ideological element refers to symbolic culture and gives people a direction in life. It also refers to the knowledge, values, and attitudes that enrich one's spiritual life. For example, we refer to the ideological elements that humans hold about themselves, nature, and society, such as mythology, philosophy, literature, religion, art, ethics, faith, language, etc. as ideological elements in non-material culture.

And it inspires the courage and motivation needed to overcome these environmental limitations, and also performs the function of presenting certain ultimate goals, actions, and directions for people to live. Religion is a representative example. Religion has a significant impact on people living their lives in terms of values, such as the rightness or wrongness of certain life goals or actions. To sum up, whether it is a material culture with a form or an intangible culture without a form, culture is a product created by people. It was created by this person to adapt to the environment in various environments. As explained earlier, culture is a way of life acquired by members of society.

And this culture is conveyed and preserved by each member of society. That is why every country has its own unique culture, and the culture formed in this way is changed not so easily. Just as both Korea and China has its own unique culture. So these cultural differences make it difficult to understand each other and even cause conflict.



Culture, Cultural Diplomacy, Public Diplomacy

1-3

Cultural Power and Soft Power

Baekbeom Kim Gu, Korea's representative independence activist and politician, added a famous paper titled 'My Wish' at the end of his autobiography 『Baekbeom Ilji』. I think there might be some people who already know about this 'My Wish'. This 'My Wish' is a paper that covers Kim Gu's political philosophy and idea, and is already included in high school textbooks. And we can see that Mr. Kim Gu emphasizes on the power and importance of culture in this article.

Let's take a look at some verses. This is probably the most well-known part. Let me read it. “I want my country to be the most beautiful country in the world. It is not that I want my country to be the richest country. Because I felt the pain of being invaded by others, I do not want my country to invade others. It is sufficient if our wealth is such that it enriches our lives and our strength is such that it repels others' aggression. The only thing I want to have endlessly is the power of a high culture. This is because the power of culture makes us happy and gives happiness to others.”

As you can see from this content, Mr. Kim Gu emphasized that the power of our culture comes from an individual level and contributes to the happiness of others. Of course, Mr. Kim Gu did not think that the power of culture only gives personal happiness.

Shall we read a little more? “The fundamental cause of mankind's unhappiness today is the lack of benevolence, mercy, and love. If only this mind develops, we will be able to live comfortably with the current material power of 2 billion. Against this spirit of humanity is only culture.” He is emphasizing that the power of culture not only brings happiness to others at the individual level, but also cultivates the spirit of mercy and love for mankind.

Therefore, Mr. Kim Gu argued that he wants our country not to be a country that imitates others, but to become the origin, a goal, and an example for this new high culture. So he continues writing that he wants true world peace to be realized in our country and through our country in the world. In order for Korea to contribute to world peace, it must have the power of culture that is stronger than mighty military or economic power.

Considering that the role and importance of public diplomac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increased significantly since the mid-20th century, the importance of culture has also increased, so Mr. Kim's argument can be seen as prescient.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Korea, as its economic and military power is relatively inferior compared to neighboring powers such as the United States, China, and Japan, having a high level of cultural power would be the most realistic way to compete with them and stand at the same level as them. And now, this Korean culture, such as K-pop, K-drama, and K-food, is sweeping the world under the name of K-culture.

Also, seeing that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consume Korean culture, wouldn't it be possible to say that Korea in the 21st century already has the power of a high culture that Mr. Kim Gu hoped for in 'My Wish'?

If you think about the power of this high culture that Mr. Kim Gu hoped for, and the K-culture I just talked about, the power of culture can be said to be really great.

Korea's traditional culture and popular culture, which began to spread with the start of the Korean Wave, greatly upgraded Korea's national imag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made Korea a representative cultural powerhouse.



In fact, since the late 1990s, the Korean wave has started to spread, starting with Asian regions such as China, Japan, and Southeast Asia. It is said that there were quite a few people in the Western world who didn't even know what kind of country Korea was or even where it was located. So, when Koreans travel abroad, many of them were known as Chinese or Japanese. As such, Korea's presenc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as greatly insignificant. If you think about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e Korean wave is sweeping the world, you can't imagine it.

Nowadays, the number of foreigners who come to Korea directly to experience Korea's traditional culture, or foreigners who are looking for Korean food such as kimchi and bulgogi, has shown big increase. As you all know so well, the BTS fandom has become a global cultural phenomenon. Korean dramas and movies, such as Squid Game and Parasite, have created a global fever, confirming the status of Korean contents. All of this was possible due to the power of culture.

Have you ever heard of the term 'soft power'? Many of you might have heard of it before. When we talk about the power of this culture, we use the expression 'soft power' to point to the power that culture has. And when the Cold War ended in the early 1990s, the danger of a large-scale war like the world war has disappeared. And as globalization progresses rapidly, the importance of this soft power is increasing a lot more.



So, then let's take a closer look at what this soft power is. Soft power, in Chinese character expression is called as 'yeonsung-kwollyuk(軟性權力). Soft power, in general definition, is the ability that influences others' behavior to get what you want. It can also be called a kind of charm. Soft power is the ability to make others to do what you want them to do. Jan Melissen, a famous scholar in the field of public diplomacy, thus expressed this soft power as the power to control the mind or the power to control opinions.

On the other hand, hard power, which is a concept contrasted with soft power, refers to a method of obtaining desired results through coercive capabilities that threaten the interests of others, such as military power, economic power, or resources. During the Cold War, when the crisis of war was heightened, of course, this hard power was the most important force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But as I said earlier,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as the risk of war decreased, the importance of soft power began to increase along with the importance of hard power.

The person who first introduced the concept of soft power was a prominent American political scientist and a distinguished professor at the Kennedy School at Harvard University named Joseph Nye. Joseph Nye first introduced the concept of soft power in 1990, as he refuted the theory of American decline that emerged in the 1980s. Nye begins to assert that the United States' national power was in decline at the time, but this was only a relative decline, and that the United States has strong soft power in addition to hard power.



Let's take a closer look. In the 1980s, the United States was going through a bad economic situation. In order to counter the threat from the Soviet Union, huge military spending was being expanded. The tax reduction policy was implemented domestically. There was also the aftermath of the global oil crisis. In addition, the decline in production and the rise in unemployment have adversely affected the US economy. This theory of American decline is a logic that emerged in this situation.

Paul Kennedy, a professor of history at Yale University, also published a book called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which referred to the decline of the United States. In this situation, Joseph Nye introduced the concept of soft power for the first time in 1990 in his book 'Bound To Lead'. This book, which refutes the theory of American decline, suggests reasons why the United States still remains the global leader though as the nature of power is changing. He presented the notion of soft power that the United States strongly has as the reason.

Nye embodied the concept and discussion of soft power by publishing a paper titled "Soft Power" in Foreign Policy, an American journal specializing in foreign affairs. In 2004, he also published a book titled 'Soft Power', further deepening and developing the concept of soft power. And Nye points out that it is difficult to solve this international problem with hard power alone, and emphasizes that this soft power is essential to successfully lead international problems.



Joseph Nye categorizes soft power not as an abstract concept, but as a kind of resource that shows these three practical forms. These three practical forms are spiritual values, culture and foreign policy. First of all, spiritual values refer to values such as morality, social norms, ethics, and democracy learned in the minds of members of society and individuals.

Next is culture. As it's mentioned earlier, culture encompasses both culture in a narrow sense, such as literature and art, and culture in a broad sense, which refers to a unique lifestyle common in a society. The third form is the foreign policy of a country.

Since diplomacy is ultimately a peaceful means taken by other countries for one's own political purposes or interests, this national level foreign policy is also an important resource for soft power. And of these three practical forms of soft power, the resource that the public intuitively understand is cultural power. Through this attraction of high-level culture, it is to win the hearts of the people of other countries. In this aspect, this soft power is important even for a powerful country like the United States, but it is more valuable for a small country like Korea or those other third world countries.

This is because these countries cannot compete with great powers only with this hard power, such as military and economic power, but they can enhance their national image through their soft power, and through this, they can preoccupy an dominant position in diplomatic and economic exchanges between countries. Of course, a country's soft power is never accumulated or formed in a short period of time. This is because soft power is the unique charm that emerges from the harmonization of a unique identity form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as well as a unique cultural tradition and ideology.



Recently, the importance of this soft power is getting bigger.

This is because this soft power is closely linked to cultural diplomacy and even to public diplomacy promoted by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 Soft power is indeed the most basic unit of cultural diplomacy, playing a key role in achieving this goal of public diplomacy on the global stage.

For example, April 2022, when the war in Ukraine was in full swing.

Ukrainian President Volodymyr Zelensky was featured in a video at the Grammy Awards, the prestigious popular music awards ceremony. And through music, he pleaded for solidarity and support for Ukraine. This is a good example of the importance of soft power.

It is because, even in the middle of a fierce war, using the power of popular music to appeal to the country's difficulties and gain support from people around the world shows how soft power is linked to public diplomacy. Hallyu, which is spreading worldwide, is also playing a key role in successful Korean public diplomacy.



Culture, Cultural Diplomacy, Public Diplomacy

1-4

What is Public Diplomacy?

So far we have talked about this culture and its power and so on. And as I mentioned earlier, as the importance of soft power increases, the importance of public diplomacy also increases. Because public diplomacy is also very closely related to culture.

So, what is this public diplomacy we are familiar with? And how is public diplomacy different from traditional diplomacy that we know?

First, let's talk about what public diplomacy means. Currently, on the website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public diplomacy is defined as a diplomatic activity that enhances Korea's influenc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y raising its national brand, by promoting diplomatic relations and enhancing our national image and by spreading consensus on history, tradition, culture, art, values, policies, and vision in Korea through direct communication with foreign citizens and securing trust. And public diplomacy is a concept that contrasts with diplomacy in the traditional sense, which refers to the process of communication and negotiation between governments, which the basic concept of it is to create a positive image by approaching the foreign public directly and touching their hearts by using various methods such as culture, art, aid, knowledge, language, media, and promotion.

In this aspect, public diplomacy is primarily aimed at foreign publics, but in addition to this, NGOs, which stands for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educational institutions such as universities, and the media are included in public diplomacy because they play an important role in forming public opinion favorable to us. In addition, as the understanding and support of the country's people for foreign policy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the country's people and various organizations as well as institutions tend to b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public diplomacy. As such, it can be confirmed that there is a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public diplomacy and traditional concept of diplomacy

In the traditional concept of diplomacy, the subject of this diplomacy is the central government, and it is usually between the governments of country A and country B. In the diplomacy area, political affairs, security diplomacy, and economic diplomacy are the two pillars of diplomacy. What is important here is that in traditional diplomacy, as the subject and target of diplomatic action, the central government was the only subject and target of diplomacy.

However, in the case of public diplomacy, the subject and the object of this diplomacy are very diverse unlike traditional diplomacy.

First, if you look at the subject of diplomacy, the subject of this public diplomacy can be various private organizations, including the central government, or even general individuals.

First of all, the object of public diplomacy includes the general public abroad, including the central government of the other country, as well as NGOs, universities, and the media, as mentioned earlier. Even if you take a look at the subject of this diplomatic action, public diplomacy includes the central government as well as various private entities and even individuals. If the nature of traditional diplomacy was closed and secret, modern concept of public diplomacy has a strong nature of openness and participation. In this aspect, public diplomacy can be said to be the third axis of diplomacy along with political affairs, security, and economic diplomacy.

Now, to help you understand public diplomacy, let's watch a short video produced by the Digital Public Diplomacy Division of Department of Public Diplomacy and Cultural Affairs i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Narrator: Do you know what public diplomacy is? While traditional diplomacy meant the process of communication and negotiation between governments, public diplomacy is a diplomatic activity to increase foreign people's understanding of and trust in Korea through various methods, either directly by the state or by working with local governments and citizens.

Around the world, instead of hard power, which focuses on physical force such as military intervention, coercive diplomacy, and economic sanctions, soft power that draws sympathy from others through charm is being emphasized.

Accordingly, the importance of public diplomacy that seeks to build goodwill and trust is growing as well.



In 2010, Korea also set public diplomacy as one of the three pillars of Korean diplomacy, along with political diplomacy and economic diplomacy, and began promoting public diplomacy as a major foreign policy in earnest.

Since then, efforts have been made to promote integrated and systematic public diplomacy by enacting the Public Diplomacy Act to arrange the legal foundation and establishing the 1st Basic Plan for Public Diplomacy to prepare guidelines for efficient public diplomacy.

Then, let's take a closer look at Korea's public diplomacy activities.

Korea has selected three major contents which are, cultural public diplomacy to spread Korea's diverse charms, knowledge public diplomacy to promote Korea correctly, and policy public diplomacy to enhance understanding of Korea's foreign policy, and is carrying out various activities in each fiel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olds events all over the world to commemorate Korea Week, diplomatic ties, and major diplomatic occasions, communicates worldwide and promotes Korea through cultural public diplomacy utilizing traditional culture, K-pop, movies, and dramas, tries to increase interest in the Korean language and Korean studies while delivering accurate information about Korea, explains our foreign policy to major national parliaments, academic societies, think tanks, and the media and also works on policy public diplomacy activities to spread consensus on this issue.

Meanwhile, public diplomacy is also changing because face-to-face activities have become difficult due to the global spread of COVID-19. The prospect of public diplomacy is expanding to digital public diplomacy which uses social media and cutting-edge technology, such as the TRUST campaign, which introduces Korea's experience and principles on responding to COVID-19, and the Stay Strong campaign, which has spread to 127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 to urge solidarity and support to overcome COVID-19, etc. So far, we have looked at what public diplomacy is.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will continue to do its best to realize a Republic of Korea that communicates with the world based on our culture, knowledge, and policies together with the people.



Professor Jang Young duk: Then, when and how did the concept of public diplomacy come about? The public diplomacy program that we now know of was first run at the national level by the United States in 1953, in the early days of the Cold War. At the time, the Eisenhower administration established the Office of Foreign Affairs in the United States to support various educational and cultural exchange programs of the US government and private organizations abroad, which can be said to be the beginning of this public diplomacy.

And the purpose of such a program was to provide insight into the United States to the world by operating various information activities, education, and cultural exchanges around the world during the Cold War, and to allow them to experience the diversity of this American culture and society for themselves by bringing many American experts abroad to the United States.

In other words, it was to foster U.S. friendly human resources and to create favorable public opinion toward the United States. Meanwhile, the term public diplomacy first appeared in 1965, also during the Cold War. Edmund Gullion, a former American diplomat at the time and a student at the Fletcher School at Tufts University, first used the term public diplomacy when he founded the Edward Murrow Center for Public Diplomacy. For reference, Edmund Murrow was called as the father of American broadcasting and journalism.

The purpose of public diplomacy at this time was also to form U.S. friendly public opinion, which was pursued by the Office of Foreign Affairs, but what is important is that from this point on, public diplomacy has started to be studied more systematically as a form of diplomacy. And if we look at the periodic characteristics of this period,, you can understand the appearance of public diplomacy concepts better. First of all, the 1960s was a time when the United States' global influence was weakening due to its defeat in the Vietnam War, and it was a time whe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ituation around the world was facing a turning point, such as the rise of Europe and Japan. In this situation, the United States has come to realize that it cannot move this global political and economic order with its hard power alone.

In other words, the United States, which was going through a decline in power, realized that in order to maintain this world order and maintain its influence, it must be sensitive not only to hard power but also to the perception and public opinion of the U.S. from all over the world. After that, the American Society began to study about this public diplomacy in earnest, and the public diplomacy could be incorporated into an important area of diplomacy.

And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in the early 1990s, discussions on public diplomacy entered a new turning point. In particular, the revolution or development of the Internet or the methods of communication we use has made the general public's opinion about this international political issue active. In addition, the importance of public diplomacy, which considers public opinion, has started to increase also. In addition to this, the recognition that the hard power focusing on military and economic power, such as the 9/11 terrorist attack in 2001 a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has reached its limit, also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this public diplomacy.

Accordingly, as the importance of diplomacy directly approaching foreign citizens increased, public diplomacy began to be re-examined as a new paradigm of diplomacy. Along with hard power, the importance of soft power has also increased a lot.



Culture, Cultural Diplomacy, Public Diplomacy

1-5

Public Diplomacy and Cultural Diplomacy

As can be seen from the definition of public diplomacy, unlike traditional diplomacy, public diplomacy uses various methods such as culture, art, knowledge, language, and media. By using this method as an attraction, they try to create a positive image of their country by captivating and moving the hearts of the foreign public. And these kind of methods is the soft power that I mentioned earlier.

When we talked about soft power earlier, we talked about three practical forms of soft power. Among these, the cultural form has been mentioned as the most important form. Regardless of traditional culture or popular culture, this culture is the core resource of soft power. If soft power is a key factor in carrying out public diplomacy, culture, the core of this soft power, is ultimately the core of public diplomacy. After all, public diplomacy, soft power, and culture are inextricably linked. Then, let me explain a little more about this relationship.

We refer to this 21st century as the century of culture. That's how important this culture is. Based on this, since the importance of soft power is increasing, the 21st century can also be called as the era of soft power. And in this era, all countries around the world,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strong or weak, are paying attention to how to maximize their soft power by using their own soft power resources. Here, there are three concepts that cover soft power in order to utilize and maximize this soft power.

The first is public diplomacy, a comprehensive concept which was detailed earlier. Each country uses its soft power to successfully carry out public diplomacy, one of the pillars of this diplomacy. The second is cultural diplomacy, conceived as a similar or sub-concept to public diplomacy. Cultural diplomacy is diplomatic activity that uses culture as a method or as a subject. Considering that culture is one of the components of soft power, the cultural diplomacy is also an important concept that contains soft power discourse. The third is the national brand. The national brand has characteristics that focus on the economic aspects to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se three concepts, I'm about to dig a little deeper into cultural diplomacy. In fact, cultural diplomacy and public diplomacy are very similar concepts. For this reason, the two concepts are often used interchangeably. However, strictly speaking, cultural diplomacy is a sub-concept of the relatively comprehensive public diplomacy because it focuses on culture. So what is cultural diplomacy?

First is the definition of cultural diplomacy. The most commonly used definition of cultural diplomacy among cultural diplomacy researchers is as follows. In other words, activities to enhance soft power, such as enhancing national image, by promoting mutual understanding through art, knowledge, information, language, and systems, targeting governments and citizens in other countries by government organizations or organizations entrusted by government organizations. As can be seen from this definition, the subject of cultural diplomacy is a government organization or an organization entrusted by a government organization. Here, the methods of cultural diplomacy are art, knowledge, information, language, etc., and the target becomes the government and citizens of other countries. Also, the purpose of cultural diplomacy is to improve the image of this country and to increase its soft power.

We need to look at the subject of this cultural diplomacy here.

The subjects of cultural diplomacy are in fact far more diverse and extensive. This includes private organizations as well as ordinary individuals. The reason why the role of the civilians is so important in cultural diplomacy is because of the nature of this culture. Of course, it is true that cultural diplomacy is also a form of this diplomacy, so it is state driven.

However, cultural diplomacy, regardless of high culture or popular culture, must involve people with a high level of cultural literacy. Therefore, this professional diplomat's ability alone cannot represent or convey the cultural capabilities of the country. If the subject of cultural diplomacy is a person without this cultural literacy, there may be a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culture of the other country in cultural exchange with the other country, which can hinder cultural exchange between countries.

Therefore, cultural diplomacy between countries absolutely requires the existence of a private sector with excellent cultural insight, and close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is required in this respect. In addition, since this cultural creativity or expression is mostly voluntary motivation of the private sector rather than state intervention, the capacity of the private sector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is aspect, the private sector plays a role of filling or replacing the missing parts of diplomacy performed by the state.

In other words, even if the role of the private sector is important, it does not mean that private should set and carry out its own diplomatic goals as a completely separate entity from the state.



Cultural diplomacy also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country's economic growth.

This is because, due to the nature of culture, this cultural diplomacy greatly contributes to exporting a country's cultural products. In particular,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mobile technology has greatly increased the consumption of this culture, and the method of consumption has also become very convenient.

For example, K-pop, K-dramas, K-beauty, and K-games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Korean popular culture as a means of diplomacy, but they also bring great results in terms of economy.

Specifically, in 2021, when this COVID-19 was pervasive, Korea's content exports exceeded 14 trillion won, recording the highest ever. This is a 4.4% in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It was a scale that far exceeded Korea's major export items such as home appliances, secondary batteries, electric vehicles, and display panels. It can be seen that this cultural product has a great economic effect.

We talked about the 21st century as the century of culture. That's why culture is so important.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and rapid globalization, cultural exchanges between countries have also increased rapidly. In particular,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is accelerating this phenomenon more strongly. As a result, the influence of culture has increased significantly. Cultural influence has become an important component of this nation's power. Based on hard resources such as the territory, population, and resources we know, Korea will never become this superpower.



However, if it is based on this soft resource such as culture, values, and human resources, Korea is already a cultural powerhouse. You can think of the influence of the Korean Wave. In relation to this, there is a short video called the K-POP World Festival in 2021. Let's watch this video together first.

As you can see in the video, you can see that people all over the world are passionate about K-POP, regardless of which continent they are from. This phenomenon is contributing greatly to the enhancement of Korea's national image. Then wouldn't it be enough to call the 21st century the century of culture?



Culture, Cultural Diplomacy, Public Diplomacy

1-6

Importance of Public Diplomacy and Cultural Exchange

Finally, let's talk about the importance of public diplomacy and cultural exchange.

In 2022, the Korea Foundation conducted a survey called the 2022 Public Diplomacy Public Recognition Survey on 5,000 ordinary citizens. The results show that 7 out of 10 Koreans agree with the importance and purpose of public diplomacy. And about 69%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 expected effect of public diplomacy policies helps to improve the country's image.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public interest in public diplomacy has increased significantly, with about 44% of respondents saying they knew about public diplomacy. The fact that public interest in public diplomacy has increased means that this public diplomacy is showing that much effect. Therefore,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attach great importance to this public diplomacy and actively utilize it. So, let's take a look at how other countries conduct public diplomacy through examples of public diplomacy in some countries.

First is American public diplomacy. I mentioned this earlier when I explained the history of public diplomacy. The United States is also the birthplace of the modern concept of public diplomacy. Therefore, the United States is also the country that uses public diplomacy most effectively. In particular, in the wake of the 9/11 incident in 2001, this public diplomacy is being further strengthened as a new diplomatic paradigm to respond to this worldwide anti-Americanism. In order to maintain this US-centered international order, the US is also operating such program like Fulbright Program to form public opinion favorable to the US and spread universal values such as liberalism, human rights, and democracy. and International Leadership Program, etc.

Next is Japan. Japan is using public diplomacy as a way to shed its existing militaristic image and the negative image of being an economic animal that has emerged in the course of economic development since the 1970s, and to plant a cultural stature comparable to its economic power and this attractive image. In response, the Japanese government has adopted cultural diplomacy as one of the three pillars of its diplomacy since the 1990s. Specifically, operating programs such as “Japan Hands” and the International Exchange Fund.

Next is China. Since the implementation of reform and opening up in 1978, China's economic growth has grown very rapidly. China is actively promoting public diplomacy to spread its image of contributing to world peace by announcing the theory of a responsible power and the rise of peace in response to the theory that China is at risk from economic development. And in 2010, it adopted public diplomacy as its main foreign strategy. Specific programs include Confucius Academy and Confucius Institute.

Next is France. France is one of the first countries to awaken to cultural diplomacy among these developed countries, and it is also the country that invests the most resources. Specifically, it is carrying out integrated public diplomacy through the Strategic Direction Committee in 2010 and the Institute France in 2011. In particular, the dissemination of the French language is an important diplomatic goal and ongoing efforts are being made through a program called Alliance France. In addition to these major countries, countries such as Germany, the United Kingdom, and Canada are placing great importance on this public diplomacy. And it is actively using it as an important part of diplomacy.

Then, how is the situation in Korea? South Korea first declared 2010 as the first year of public diplomacy, and jumped into public diplomacy in earnest. And the Korean government confirmed its importance by elevating public diplomacy to an important axis of Korean diplomacy along with political diplomacy and economic diplomacy. And currently, through 178 overseas spaces, we are developing two-way public diplomacy that considers local customs, culture, and diplomatic relations. In particular, we are expanding King Sejong Institutes, which is in charge of disseminating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And Hallyu, which symbolizes Korean popular culture, can be said to be the core of Korean public diplomacy. As mentioned before, Korea has no choice but to emphasize this public diplomacy because it is not easy to stand shoulder to shoulder with powerhouses such as the United States, China, and Japan in terms of the physical size of the country. As a result of these efforts, Korea was able to become a cultural powerhouse.

Then, let's watch a short video to help you understand what the current state of Korean public diplomacy is like.

MC: In the new normal era facilitated by the COVID-19 crisis, diplomacy is also changing rapidly. In particular, as social distance has been going on for a long time, the importance of diplomacy that moves people's hearts by communicating across borders is growing. Now that the whole world is going through this crisis together, shall we go to the diplomatic scene where new opportunities are being created despite many challenges? Unlike 2020, which was held online due to the influence of COVID-19, the 2021 National Day Reception was held as an in-person event with reduced invitations and by using a French health pass. This kind of event is a good opportunity for public diplomacy to introduce Korean culture and let others experience them.

Why did so many people gather? It is to experience the games that appeared in the Korean drama 'Squid Game'. The games introduced are traditional games designed to feel intimacy and to get closer to each other through play rather than deciding whether to win or lose. Success! Through the event, participants were able to understand a little more about Korean culture, which they had been curious about while watching Korean dramas.

Due to the lockdown in 2020 due to COVID-19, many official residences in Finland held the largest event of the year, the National Day Reception, untactly. 221 teams from 14 countries, including Argentina, Brazil and Mexico, competed in the 12th Central and South America K-Pop Contest hosted by the Korean Cultural Center in Argentina. 2021 marks the 25th anniversary of Korea joining the OECD. If you introduce a Korean movie, most of the audiences know that it is a Korean movie. It was the first to leave a strong impression in Asia.

Welcome to the 2021 Kimchi Festival. On the first Kimchi Day, a Kimchi Festival was held at the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Los Angeles. Not only eating kimchi, but making and sharing it is an important element of Korean identity. In my opinion, kimchi has its own unique taste. Maybe it's because I like spicy food, but Kimchi is really delicious.

In 2021, the remains of an independent hero who was buried in Kazakhstan for Liberation Day returned to Korea. "It is an honor to welcome the return of General Hong Beom-do, who devoted his life to the independence of his country. From now on, the Republic of Korea Air Force will safely escort you. Victory." The repatriation of the remains of General Hong Beom-do is also an achievement obtained from long-standing relations with Kazakhstan and diplomatic power of persuading the Korean community.

It was a celebration of the relocation of the 'Unification Pavilion' pavilion, which was built in Potsdam Platz in 2015 to commemorate the 25th anniversary of German reunification, to the garden of the Korean Embassy. For Germans who experienced division and reunification earlier, it was a time to sympathize with the pain of division and reflect on the meaning of peace. In May 2020, the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for Solidarity and Inclusion' friendship group was launched with 11 UNESCO member countries led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to jointly respond to hatred and discrimination that are deepening due to COVID-19. The Republic of Korea's diplomatic activities were a step toward spreading the message of solidarity and inclusivenes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overcome COVID-19 together, and safeguarding democracy, peace, and common human values. Korean public diplomacy is communicating with various ideas and innovative contents to promote friendship, solidarity and cooperation with citizens around the world. Its evolution never stops.

Professor Young-Duk Jang: As shown in the video, we can see that Korea's diverse cultures are being welcomed around the world even in the midst of this COVID-19 pandemic. Could this be said to be the strength of Korean culture? As such, major countries, including Korea and the United States, value public diplomacy and are trying to expand their cultural influence through public diplomacy. And each country is attempting cultural exchange in various ways to effectively carry out public diplomacy. Culture is not one-way like water flowing from high to low.

As can be seen from the word exchange, culture implies a two-way character of mutually influencing each other. In this respect, if cultural exchange in a narrow sense is the exchange of works such as art products, performances, and traditional crafts, in this broad sense, cultural exchange can be said to be the interaction of information, values, and norms in everyday life through various actions.

So why is this cultural exchange so important? First of all, cultural exchange refers to various activities to promote contact and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different cultures. In the past, the contact and spread of different cultures was mainly through the expansion of political, economic or military domination and subjugation relations between countries. On the other hand, cultural exchange in the modern concept recognizes basic equality and mutuality between various cultures, and also means various activities for peaceful and stable development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formation of an international cultural community.

What is important here is that this cultural exchange recognizes equality and reciprocity. There is no hierarchical order in cultural exchange.

Another reason why cultural diplomacy is so important in this respect is that it has become impossible to live with one's own culture in a highly globalized modern society.

Of course, even if we do not consider the current situation, human beings have already been developing their own culture through exchanges with other cultures from a very long time ago, so this cultural exchange has an important meaning for the development of mankind.



Second, cultural exchanges increase the degree of understanding of each other.

If you look at the definition of public diplomacy, it means promoting diplomatic relations by spreading consensus on history, tradition, culture, art, values, policies, and vision of Korea through direct communication with foreign nationals and securing trust.

What we should pay attention to here is the need for public diplomacy and direct communication with foreign nationals. Communicating with the other side means that public diplomacy is not limited to one-way communication. Because communication is two-way, not one-way.

Since people from other countries or ethnic groups have their own culture and emotion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and acknowledge them in order to enable cultural exchange and direct communication with foreign citizens. Cultural exchange is therefore an essential element in promoting this mutual understanding.

Thirdly, cultural exchange is an unavoidable process for social development in a country and for exchanges between countries. In addition, cultural exchanges are also an important channel for political ties between countries, as they serve as means and tools for realizing the country's political and economic goals. Korea and China have continued cultural exchanges in various aspects as long as their long history. And Korea and China are carrying out public diplomacy toward each other based on these cultural exchanges.

Therefore, examining the various cultural exchanges between Korea and China is not just looking back at past cultural exchange events. It is to confirm the meaning of this cultural exchange between Korea and China at this point and to provide insight so that bilateral relations can move in a better direction also. In addition, since cultural ex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an important meaning in terms of activating cultural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it is more necessary to consider cultural ex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Culture can be divided into two broad categories: culture in a narrow sense and culture in a broad sense. In a narrow sense, culture is used in a sense related to literature or the arts.

In a broad sense, culture refers to a unique way of life shared in a society.

It refers to the behavioral patterns and ways of thinking that members of society share through acquired learning. Soft power is the ability to influence the behavior of others to achieve a desired outcome, which can be said that it is a kind of charm.

The ability to make the other person to act in a way you want is the soft power.

Public diplomacy is a diplomatic activity that enhances the influenc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y enhancing the national image and national brand to promote diplomatic relations by expanding consensus on Korea's history, tradition, culture, art, values, policies, and vision through direct communication with foreign citizens and securing trust.

In addition, cultural diplomacy is an activity to enhance soft power, such as enhancing the national image of one's own country by promoting mutual understanding through arts, knowledge, information, language, systems, etc., for governments and citizens of other countries by government organizations or organizations entrusted by government organizations.

Cultural exchange in the modern concept means various activities for the peaceful and stable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formation of an international cultural community, recognizing the basic equality and mutuality between various cultures.

As it's the first week, today I briefly explained about this culture, public diplomacy, and cultural diplomacy. Thank you very much for taking the first week class so far.



讲义



文化、文化外交、公共外交

1-1

讲座介绍

我们在本课程中将学习文化、文化外交和公共外交，以及为什么文化在国家关系中很重要。还有我们将了解这种公共外交意味着什么，以及为什么文化在公共外交中重要。通过这门课我们都可以解释什么是文化和文化外交，也可以说明文化的重要性。最后我们可以解释什么是公共外交以及公共外交与文化的关系。

大家好，很高兴见到您们。我叫张英德，我将和您们一起学习关于韩国中的中国和中国中的韩国。首先这讲座的目的是，如您们可以从题目获悉，了解在韩国可以遇到的中国文化和在中国可以遇到的韩国文化。正在观看讲座的各位都知道 韩国和中国在地理上非常接近，因此历史上两国在政治，经济，社会，文化等许多领域方面长期保持着多种方式的交流。当然众所周知，两国也经历过多次战争。

尽管如此，两国至今还在许多方面保持着紧密的关系和交流。特别是两国地理位置相邻，因此可以长期进行人员交流了，而且这样人员交流也带了文化交流。如果把这个人看做文化的总和或文化的载体，那可以说人的移动就是文化的移动。人的移动使文化可以移动。

属于不同文化的人进行相互交流，自然而然地形成相互间的文化交流。而且通过这样的文化交流，两国必然会受到对方文化的影响。韩国和中国长期保持着交流，还有进行了多种文化的交流 相互产生了很大的影响。

而且两国在文化上相互产生了很大的影响 因此作为文化交流的痕迹,各国都保留着很多彼此的文化。

那我们一起想想吧。首先, 在我们周围容易发现的中国文化有什么? 大家应该都有容易想到的。

虽然还保留着中国的多种文化要素, 但其中最具有代表性的是儒教和汉字。可以说, 它们是我们日常生活中随处可接触的中国文化。众所周知,在韩国,儒教文化至今仍非常强烈地存在。汉字是至今仍在很多地方使用的中国的文字。除此之外,还有相当于中华圈的中国大陆及港澳台以外 居住在外国的中国人以及台湾华侨聚居的唐人街。因为它保留着中华圈人的文化 这个唐人街也被称为“小中国”。

那么, 留在中国的韩国文化有哪些呢? 从历史上看,从古至今,从韩半岛传来的文化在中国各处都存在。

最具代表性的是中国东北地区的高句丽遗址。此外还有,作为人员交流的痕迹,在中国大陆活动 并获得名望的新罗时代的崔致远、朝鲜时代的金贞益、许兰雪轩等人物。而且位于中国东南部的福建省泉州市还有许多以新罗和高丽为名的地名 可见当时大陆和韩半岛的交流有多么活跃。还有,韩国和中国建交的1992年以后,韩国的大众文化传入中国,大受欢迎,韩流开始兴起, 现在也有很多中国人把韩国的K-POP、电视剧、化妆品、饮食等 消费着多种韩国大众文化。



以上所举的例子虽然是我们很容易接触到的例子,但只要稍微仔细观察一下,就能发现更多的文化交流事例和痕迹。就这样,两国通过长期的交流,在文化上相互影响,可以发展。本讲座将具体了解韩国和中国留下的文化交流的多种事例,回顾文化交流的意义,并了解文化交流在国家间的关系中起到多么重要的作用。这些国家之间的政治交流和经济交流当然很重要,但文化交流通过提高两国国民之间的相互理解,为相互尊重奠定了基础,所以为了维持两国的友好关系,最重要的是需要理解这文化交流。特别是最近韩国的反华情绪正在增加,相反,中国的厌韩情绪正在增加。像这样反中情绪和厌韩情绪的增加问题也可以看作是因对彼此文化缺乏了解或误会而引发的。因此文化交流很重要,并且有必要充分了解对方的文化。

本次讲座主要分为四个部分。首先,正如前面所说,我们将了解韩国和中国之间的文化交流,并将从理论的角度考察为什么这种文化交流很重要。我们还将研究为什么文化在国际关系中如此重要。另外,把跟文化交流一起,作为外交的一个轴心,其重要性最近日益增大的公共外交是什么以及公共外交中文化为什么也很重要我们将了解一下。第二,那么韩国和中国在历史上如何交流的,我们将仔细了解一下韩中关系和历史。由此,我们将讨论在悠久韩中关系的历史中文化交流的意义。第三,我们要看一下留在韩国的中国文化的具体例子。这里有前面提到的儒教、汉字、唐人街等。最后,第四,相反,将通过具体的例子来看待留在中国的韩国文化。特别是,我们将通过追踪从古代到现在的按时代留存于中国的韩国文化,来寻找中国里面的韩国。

至此, 我简单介绍了韩国中的中国和中国中的韩国讲座。正如我所说的,本讲座整体上将以这个具体事例为中心进行授课, 您们不会有理解上的困难。还有, 今天是我们讲课的第一节课, 在了解具体事例之前, 我们先简单谈谈理论部分。首先, 让我们谈谈什么是文化 并了解文化交流在国家之间的关系中为什么重要, 以及文化所具有的力量是什么。另外, 我们将讨论现代国际关系中越来越重要的公共外交。特别是, 让我们更具体地谈谈为什么文化在这个公共外交中那么重要。除此之外, 我们还将讨论一下公共外交的整体内容。



文化、文化外交、公共外交

1-2 文化是什么

那么，文化到底是什么呢？我们很容易在周围听到文化这个词，而也很容易使用。
在与某人的日常对话中很容易出现，通过媒体也经常提到什么什么文化。

例如，我们在日常生活中经常使用文化艺术的表现。这里所说的文化包含文学、音乐和绘画等艺术方面的意义。因此，我们对于消费这种艺术的行为，也称之为文化生活。但是我们要谈论的文化比艺术层面的任何狭义都包含着更广泛的意义。当然，除了狭义的文化之外，我们在日常生活中也经常使用文化这个词。

例如传统文化、大众文化、韩流文化、西方文化、青少年文化等就是这样的例子。虽然我们很容易使用“文化”这一词，但很难正确定义“文化是什么”。这可能是因为这种文化与我们的日常生活息息相关，但最重要的是因为文化如此多样，其含义也非常广泛。例如，在地理上，不同地区或不同国家，相关地区和国家文化都不一样，因此对该文化的定义也会有所不同。从历史上看，还有每个时代都表现出不同的文化特征，因此很难用一句话来准确定义文化又是什么。

那么我们应该如何定义和理解文化呢？首先，让我们看一下文化这个词的词源。

我们用英语表达文化是"Culture"。这个文化的词源来自拉丁语"Cultus"，意为"耕田耕作"。

由此可见,意味着文化的英语单词"Culture"就是源于拉丁语的"Cultus"。随着时间的流逝,这拉丁语"Cultus"变成了从自然行为到此相反的意义“文明行为”。又过了一段时间,它被用作表示上层阶级的行为的词。到了19世纪,它开始被用于教授优秀的艺术、音乐和思想的意义。进入20世纪后,这个文化的概念随着大众文化的发展,不仅被用作精致、有教养、高档的意思,而且被广泛地用于指代人类所有生活方式。

从文化的词源可以看出,文化的意义随着时代的不同而发生了很大的变化。首先,文化的意义大体上分为狭义的文化 and 广义的文化两大类。

首先,如前所述,狭义的文化是在与文学或艺术相关的意义上使用的。我们称文化为精神上或物质上的先进状态或干练和有教养的外表。简单的例子有文化人、文化生活、文化设施、文化活动等等。

而且,在我们容易接触到的门户网站新闻中,文化类别也属于狭义的文化。

其次是广义上的文化。广义上的文化是指一个社会普遍存在的独特的生活方式,也指些社会成员通过学习而共有的行为模式和思考方式等。比起狭义的文化,这个广义的文化包含的对象更多样。

例如,传统文化、青少年文化或基督教文化、韩国文化、西方文化、大众文化, 这些表现都属于广义的文化。考虑到前面提到的文化的意义, 人们生活的地方就都有这种文化存在着。

因为文化就是在一个社会共同出现的独特生活方式和思考方式。但并不是说人类的所有行为都是文化。

那么, 我们所说的这种文化和非文化又有什么不同和区别呢? 首先, 如果说是文化, 则与前面描述的广义的文化概念一脉相承。也就是说,人们通过后天学习行为产生的生活方式 和反复持续的生活方式被称为文化。比如说吃饭的时候用勺子和筷子, 或者看着大人打招呼, 这些都是文化行为。这种行为是后天学习的, 也是反复、持续的生活方式。

相反,非文化是指,即使是人类的行为, 如前所述, 不是通过学习获得的 就是先天特性或生物学本能、欲望的行为、个人喜好、习惯 或习惯性的行为以及暂时性、偶发性的行为等。举个简单的例子, 肚子饿的时候找食物, 或者因为困倦而打哈欠的行为, 或者个人结巴, 都是因为人的本能或者个人的习惯而出现的行为。这种行为不是我们后天学习的行为,所以不叫文化。也就是说,人类天生具有的特性或生物学的本能,我们不称之为文化, 正如前面所说,社会成员后天学习的生活方式被称为文化。

接下来，让我们谈谈文化的构成要素。构成文化的要素大致可分为物质文化和非物质文化。

首先，物质文化，从物质这个词可以看出，人类为了满足生活所需而创造的物质方面，即具有看得见的物质形态。因此可以说物质文化是人类出演后产生的文化，在人类学中对这种物质文化的研究由来已久。

例如，英国的人类学家泰勒指出，文化不仅指习俗、信仰等，还指手斧、犁等具体事物，还包括生火、捕鱼等技术，是人类固有的事物和事件。换句话说，与人类的基本衣食住行相关的一切都可以说是物质文化。

另一位学者，波兰的马林诺夫斯基则强调，这种物质文化是所有文化要素中必须存在的一个条件，我们不能将物质文化与其他文化要素分开进行研究。与此不同，非物质文化是指人类为了适应特定的环境及维持生活，形成的精神和观念文化。从这个说明中可以看出，非物质文化与物质文化不同，指肉眼看不到的部分。



并且非物质文化大致可以分为制度要素和观念要素两个要素来说明。首先, 我们来看制度要素。在非物质文化中, 这种制度要素跟从词语可以看出一样 与社会制度有关的。因此也被称为规范文化。因为这是指限制社会成员的行为或规定关系的规范 这个原理, 是维持社会秩序、实现全体社会运营的制度和习惯。而且这些制度要素, 如家庭制度、婚姻制度或亲属制度、政治制度、经济制度、法律制度或教育制度等, 向社会成员提出行动标准的作用。

其次是观念要素。这个观念要素是指象征文化, 也指赋予人们人生方向、并丰富精神生活的知识、价值和态度等。例如神话、哲学、文学、宗教、艺术、伦理、信仰、语言等。人类对自己、自然、社会等所具有的观念性的东西, 我们称之为非物质文化的观念性要素。

并且它激发了克服这些环境限制所需要的勇气和动力, 并提出人类需要生存的某种最终目标、行为和方向的功能。宗教是一个代表性的例子。宗教对信仰宗教的人, 某种生活目标或行为的对错等在价值观方面产生很重要的影响。综上所述, 无论是具有这种形态的物质文化, 还是没有形态的非物质文化, 这种文化都是人创造的产物。这是人类为了在多种环境下适应那个环境而创造出来的。如前所述, 这是因为文化是社会成员后天学习的生活方式。

而且这种文化是由各社会成员传达和守护的。因此, 每个国家都拥有独特的文化, 这样形成的文化也不会轻易改变。就像韩国有韩国独特的文化, 中国有中国独特的文化一样。所以这些文化上的差异让彼此很难理解, 甚至会产生冲突。

文化、文化外交、公共外交

1-3

文化的力量与软实力

大韩民国代表性的独立运动家兼政治家的白凡金九先生《白凡日志》末尾补充了“我的愿望”这一著名论文。我想应该有很多人对“我的愿望”已经很了解了。

这篇“我的愿望”是揭示金九先生的政治哲学和思想的论文，已经被收录在高中课本中。

而且我们可以看到这篇文章中金九先生强调文化的力量和重要性。

我来介绍几句。这可能是最广为人知的部分。我来读一下。“我希望我的国家成为世界上最美丽的国家。

并不是希望成为最富强的国家。我对别人的侵略感到心痛,不希望我的国家侵略别人。

我们的富力足以丰富我们的生活就可以, 我们的强大足以抵御别人的侵略就可以的。

唯一想要拥有的是极高文化的力量。因为文化的力量使我们自己幸福, 进而给别人带来幸福。”

从这些内容中可以看出, 金九先生强调说,我们的文化力量将从个人的角度方面为我和 别人的幸福做出贡献。

当然,这金九先生并不认为文化的力量只会带来个人的幸福。

我们再读一点吧。他说 “人类现在不幸的根本原因是缺乏仁义, 缺乏慈悲, 缺乏爱情。

只要这种心态发展, 以目前的物质能力, 20亿人类就能过上安逸的生活。对抗人类这种精神的只有文化。

“他强调文化的力量不仅能在个人层面带给自己和他人幸福, 而且培养人类的慈悲和爱的精神也只有文化。



因此,金九先生说:"我希望我的国家不要成为模仿别人的国家,而是成为这种高新文化的根源,成为目标和模范。因此,我希望真正世界的和平能够在我国而通过我国,在世界上实现。"就是说,我国为了世界和平做出贡献,必须拥有比强大的军事力量和经济力量更高的文化力量。

20世纪中期以后,随着公共外交在国际社会中的作用和重要性大幅增加,文化的重要性也随之增加,从这一点来看,金九先生的主张可以说是先见之明。尤其是韩国,由于经济和军事实力与美国、中国、日本等周边强国相比处于相对劣势,因此拥有较高的文化力量是与他们竞争、并驾齐驱的最现实的方法。现在K-POP、K-电视剧、K-food等韩国文化以 K-culture 的名义席卷全球,而且全世界很多人消费韩国文化,由此可以看出21世纪的韩国已经具备了金九先生在《我的愿望》中希望的高文化力量。

想想金九先生所希望的这种高文化力量,以及刚才所说的K-culture,可以说文化的力量真的很大。随着韩流的兴起而开始扩散的韩国传统文化和大众文化在国际社会上大幅提升了韩国的国家形象,使韩国一跃成为代表性的文化强国。



事实上,韩流从1990年代后期开始在中国、日本和东南亚等亚洲地区开始扩散。

据说,到那时候,西方世界还有很多人不知道韩国是什么样的国家,甚至不知道韩国在哪里。

所以韩国人去海外旅行的话,大部分人都认为是中国人或日本人。由此可见,当时在国际社会中,韩国这个国家的存在感非常弱。考虑到韩流席卷全球的现在的情况,应该无法想象的。

现在,为了体验韩国的传统文化,亲自来到韩国的外国人 和辛奇或烤肉等寻找韩国饮食的外国人也增加了很多。众所周知,BTS粉丝团已成为全世界的文化现象,鱿鱼游戏和寄生虫等韩国电视剧和电影掀起了世界性的热潮,确认了韩国内容的地位。由于文化的力量,所有这一切都是可能的。

大家听过‘软实力’这个词吗?应该有很多人听过。

我们在谈论这种文化的力量时,用这种“软实力”来形容文化所具有的力量。

在1990年初,冷战结束后,像世界大战这样大规模战争的危险消失了,随着全球化的快速发展,这种软实力的重要性越来越大。



那么, 让我们更具体地说一下这个软实力是什么吧。Soft Power (软实力) 用汉字表达就是软性权力。根据一般定义, 这种软实力是影响对方行为以获得我想要的东西的能力, 也可以说一种吸引力。让对方按照自己的意愿行动的能力就是软实力。在这个公共外交领域, 著名学者扬·梅利森因此将这种软实力表达为"掌握心灵的力量" 或"掌握意见的力量"。

与此相反, 与软实力相对立的概念, 硬实力是指通过军事力量或经济实力、资源等 威胁对方利益的强制能力, 获得自己想要的结果的方式。在战争危机高涨的冷战时期, 这种硬实力当然是国际社会中最重要力量。但是正如前面所说, 冷战结束后, 战争的危险大幅减少, 随着硬实力的重要性 软实力的重要性也开始逐渐增加。

首次介绍软实力概念的人是美国著名政治学者、哈佛大学肯尼迪学院特聘教授约瑟夫 奈。约瑟夫 奈反驳着20世纪80年代兴起的美国衰退论 在1990年首次介绍了这一软实力概念。他开始主张, 当时美国的国力正在衰退, 但这只是相对的衰退, 美国除了硬实力外 还拥有强大的软实力。



我们再具体地谈一谈吧。20世纪80年代, 美国的经济状况不佳。为了应对苏联的威胁, 正在扩大庞大的军费支出。国内正在推进减税政策, 还有世界石油波动的后遗症。再加上生产的减少化、失业率的增加也对美国经济产生了不利影响。这种美国衰退论是在这种情况下出现的逻辑。

曾任耶鲁大学历史学教授的保罗·肯尼迪还出版了一本名为《强国兴亡》的书, 书中提到了美国的衰退。在这种情况下, 约瑟夫·奈在1990年首次介绍了《Bound To Lead》一书, 首次提出了软实力概念。反驳美国衰退论的这本书提出了在力量本质正在发生变化的情况下, 美国仍然只能成为全球领导者的理由。为此, 提出了美国强大的软实力。

他在美国外交专门杂志《外交政策 (foreign policy) 》上发表了题为《软实力》的论文, 具体化了关于该软实力的概念和讨论。2004年出版了题为《软实力》的著作, 进一步深化和发展了软实力概念。奈还指出, 仅靠硬实力很难解决这个国际问题, 并强调为了成功引领国际问题, 必须要有这个软实力。



约瑟夫·奈将软实力归类为不是一个抽象的概念，而是一种显示这三种实际形式的资源。这里的这三种实际形式是指精神价值、文化和外交政策。首先，精神价值是指在社会成员和个人精神中学习的道德或社会规范、伦理、民主主义等价值观。

接下来是文化。前面已经提到过，文化包括文学或艺术等狭义的文化，以及指在一个社会共同出现的独特生活方式的广义文化。第三种形式就是一个国家的外交政策。外交最终是为了本国的政治目的或利益采取的和平手段，因此这个国家层面的外交政策也是软实力的重要资源。而在软实力的这三种实际形式中，让大众直观了解的资源就是这种文化力量。就是通过这种高级文化的吸引，来收拢他国人民的心。从这个角度来看，这种软实力对美国等强国也很重要，但是对像韩国或其他第三世界国家那样的中小国家更有价值的力量。

因为这些国家虽然仅凭军事力量和经济力量的硬实力无法与强国抗衡，但通过本国的软实力可以提高国家形象，并以此在国家间外交或经济交流中抢占有利地位。当然，这一国家的软实力绝不是短期内积累或形成的。因为长期形成的固有认同感和悠久的文化传统、思想等融合在一起后出现的固有魅力就是软实力。



最近这个软实力的重要性越来越大。这是因为该软实力与文化外交乃至政府和民间部门共同推进的公共外交密切相关。软实力实际上是文化外交最基础的单位,在全球舞台上实现这一公共外交目标方面发挥着关键作用。

例如,乌克兰战争激烈的2022年4月,乌克兰总统沃洛德米尔·泽伦斯基在权威的大众音乐颁奖典礼格莱美颁奖典礼上通过视频登场。而且通过音乐呼吁过对乌克兰的连带和支持。这就是十分体现软实力重要性的事例。

因为在激烈的战争中,借助大众音乐的力量,呼吁国家面临的困难,并试图从全世界人民得到支持,这充分体现了软实力如何与公共外交联系起来。在全世界范围内扩散的韩流也对成功的韩国公共外交起到了核心作用。



文化、文化外交、公共外交

1-4

公共外交是什么

到目前为止,我们谈论了文化和文化所具有的力量等。而且正如前面所说,随着软实力重要性的增加,公共外交的重要性也在增加。因为公共外交也与文化有非常密切的关系。

那么,我们熟悉的公共外交是什么呢?而且公共外交与我们所知的传统外交有何不同?

首先,让我们谈谈公共外交的意义。目前,韩国外交部网站将公共外交定义为"通过与外国国民的直接沟通,扩散对韩国历史、传统、文化、艺术、价值、政策、展望等的共识,以确保信赖,增进外交关系,还通过提高韩国的国家形象和国家品牌,在国际社会上提高我国影响力的外交活动"。

另外,公共外交是指以与政府间的沟通和协商过程的传统意义上的外交进行对比的概念,文化、艺术、支援、知识、语言、媒体、宣传等利用多种手段,直接接近外国大众,讨他们的欢心,给他们带来感动,打造积极形象是公共外交的基本概念。

在这方面,公共外交主要针对国外公众,但除此之外,NGO等非政府组织、大学等教育机构和媒体等也在形成有利于我们的舆论方面发挥着重要作用,因此被列入公共外交对象。

此外,最近随着本国国民对外交政策的理解和支持越来越重要,本国国民和本国各团体及机关也纳入公共外交范畴的趋势。由此可见,公共外交与传统意义上的外交相比,存在根本性的差异。



传统意义上的外交, 这种外交的主体是中央政府, 通常在A国和B国政府之间进行。外交的领域是政务, 还有安保外交和经济外交可以说是外交的两大轴心。这里重要的是, 作为外交行为的主体和对象, 在传统外交中, 中央政府是唯一外交的主体和对象。但是, 就公共外交而言, 这种外交的主题和对象与传统外交不同, 具有很大的多样性。

首先从外交主体来看, 这个公共外交的主体, 包括中央政府, 各种民间团体, 甚至普通个人都可以成为外交的主体。公共外交的对象如前所述, 包括对方国家中央政府 外国普通大众和NGO、大学、媒体等也包括在内。从这种外交行为的主体来看, 公共外交既包括中央政府, 也包括各种民间团体 甚至个人。如果说传统外交的性质是封闭的秘密外交, 那么现代意义上的公共外交则具有很强的开放和参与的性质。那么现代意义上的公共外交则具有很强的开放和参与的性质。从这个角度来看, 公共外交 与政务和安保、经济外交一起 可以说是外交的第三个轴心。

至此, 为了帮助大家了解公共外交 让我们一起观看外交部公共外交文化局数字公共外交科制作的短视频。

你知道公共外交吗? 如果说传统外交是指政府间的沟通和协商过程, 那么公共外交是国家直接或与地方自治团体、国民一起通过多种方法 提高外国国民对我国理解的信赖度的外交活动。在全世界范围内, 比起以军事介入、强压外交、经济制裁措施等物理力量为中心的硬实力, 更强调通过魅力引起对方共鸣的软实力。因此, 追求好感和信赖形成的公共外交的重要性也越来越大。

我国也在2010年与现有的政务外交、经济外交一起,将公共外交设定为大韩民国外交的三大轴心,将公共外交作为主要外交政策正式推进。此后,制定《公共外交法》,奠定法律基础,制定第一次公共外交基本计划,制定有效的公共外交指导方针等,为推进综合、系统的公共外交而努力。

那么, 让我们更详细地了解一下我国的公共外交活动吧。

我国为了扩散韩国的多种魅力,将文化公共外交、致力于正确宣传韩国的知识公共外交、提高对韩国外交政策的理解的政策公共外交选定为三大内容,各领域正在实施多种活动。

外交部在世界各国举行纪念韩国周、建交及主要外交契机的活动,通过利用传统文化、K-POP、电影、电视剧等文化公共外交与全世界进行沟通,宣传韩国,传达对韩国的正确信息,提高对韩国语和韩国学的关心,以主要国家议会、学会、智囊团、媒体等为对象说明我国外交政策,并致力于扩大共识的政策公共外交活动。

另外,随着新型冠状病毒在全世界的扩散,面对面活动变得困难,公共外交也在发生变化。介绍韩国应对新型冠状病毒的经验和原则的TRUST活动、扩散到全世界127个国家,敦促为克服新型冠状病毒的连带和支持 Stay Strong活动等 SNS、利用尖端技术的数字公共外交,公共外交的地平正在扩大。到目前为止,我们了解了公共外交是什么。外交部今后也会与国民一起,以我们的文化、知识、政策为基础,为实现与世界沟通的大韩民国而竭尽全力。



张英德教授：那么公共外交概念是什么时候，通过什么契机产生的呢？

目前我们所知道的这个公共外交项目在国家层面首次运营是在冷战初期的 1953年美国。

当时，艾森豪威尔政府在美国设立了对外宣传处，在海外支援美国政府以及民间机构的各种教育和文化交流项目，可以说是公共外交的最初。而这样一个项目的目的是通过在冷战期间在世界范围内开展各种信息活动、教育和文化交流，向全世界提供对美国的洞察力，让海外很多美国专家来到美国，让他们自己体验美国文化和社会多样的经验。

即，培养对美国友好的人力资源，及制造对美国友好的舆论。另外，公共外交一词首次出现也是在冷战进行中的1965年。当时，美国前任外交官、塔夫茨大学弗莱彻学院学生 埃德蒙·格列昂成立"爱德华·默罗公共外交中心"后，首次使用了公共外交这一词。作为参考，这个人，埃德蒙·默罗曾被称为美国广播和新闻之父。

当时公共外交的目的也是对外宣传处追求的对美国的友好舆论的形成，但重要的是，从这时开始，公共外交作为外交的一种形态，开始更加系统的研究。而且从当时的时代特征来看，可以更好地理解公共外交概念的出现。首先，20世纪60年代，美国因越南战争的战败美国的世界影响力减弱，欧洲和日本崛起等，在世界范围内，这一国际政治局势迎来了转换期。在这种情况下，美国认识到，仅凭美国拥有的硬实力，无法动摇全球政治经济秩序。



换句话说,经历过势力衰退的美国认识到 为了维持本国偏爱的世界秩序和维持影响力,不仅要对硬实力,还要对美国自己世界各国的认识和世界舆论敏感。此后, 美国学会开始正式开展这项公共外交的研究, 并将这种公共外交纳入外交的重要领域。

而且,随着1990年代初期冷战的结束,公共外交的讨论也迎来了新的转折点。特别是我们使用的网络或通信手段的革命或发展,使普通大众对这一国际政治事件的意见表达活跃起来,而且重视舆论的公共外交的重要性也开始大幅增加。再加上2001年发生的9·11恐怖袭击或全球金融危机等 以军事力量和经济力量为中心的硬实力面临局限的认识,也大大强调了公共外交的重要性。

因此,随着直接接近外国国民的外交重要性增加,作为新的外交范式,公共外交开始重新审视,与硬实力一起,软实力的重要性也大幅增加。



文化、文化外交、公共外交

1-5

公共外交与文化外交

从公共外交的定义中可以看出，这种公共外交与传统外交不同，在文化艺术、知识、语言、媒体等方面运用了多种手段。通过将这种手段作为一种魅力，抓住外国大众的心，并感动他们，努力塑造对本国的积极形象。这种手段就是前面提到的软实力。

我们之前在谈论软实力时，谈到了这个软实力三种实际形态。其中最核心的形态就是文化。无论是传统文化还是大众文化，这种文化才是软实力的核心资源。如果说软实力是执行公共外交的核心要素，那么作为该软实力核心的文化最终可以说是公共外交的核心。归根到底公共外交和软实力和文化的有着密不可分的关系。那我们再说明一下他们的关系吧。

我们也把这个21世纪称为文化世纪。就是说文化越来越重要了。因此，软实力的重要性越来越大，所以21世纪也可以称为软实力时代。而且在这种时代,无论是强国还是弱小国家,全世界所有国家都在关注如何利用本国的软实力资源将软实力最大化。这里有，为了利用软实力并最大化,包含软实力的三个概念。



第一个是公共外交，这是先前详述的总体概念。各国为了成功执行外交的一个轴心-公共外交,利用软实力。
第二个是文化外交，被视为与公共外交相似或从属的概念。文化外交是以文化为手段或主体的外交活动，考虑到文化是软实力的组成部分之一，可以说该文化外交也是包含软实力讨论的重要概念。
第三是国家品牌。国家品牌的特点是注重经济方面，以提升国家竞争力。

在这三个概念中我们想进一步了解文化外交。其实这种文化外交和公共外交是一个非常相似的概念。因此，这两个概念经常互换使用。但是严格来说，这种文化外交是着眼于文化，所以相对来说，可以说它是全面的公共外交的一个子概念。那么文化外交又是什么呢？

首先是文化外交的定义。文化外交研究者最常用的文化外交定义如下。即文化外交就是政府机关或政府机关委任的机关 对其他国家政府和国民为对象以艺术、知识、信息、语言、制度等为手段 增进相互理解，从而提高本国国家形象等软实力的活动。从这个定义中可以看出，文化外交的主体是政府机构或政府机构委任的机构，文化外交的手段是艺术、知识、信息、语言等，而且这个对象是其他国家政府和国民。并且文化外交的目的是提高国家形象，提高软实力。



在这里我们需要了解一下这个文化外交的主体是什么。事实上文化外交的主题要多样化和广泛得多。这包括民间团体,也包括一般个人。在文化外交中,民间作用如此重要的原因是因为该文化所具有的属性。当然,文化外交也是这种外交的一种形式,因此国家主导的是事实。

但是文化外交不管是高级文化还是大众文化,必须要有具有高水平文化素养的人参与。因此,仅凭这个专门外交官的能力,无法代表本国的文化力量,也无法传达。因为如果文化外交的主体是没有文化素养的人,在与对方国家的文化交流中,对对方国家的文化理解可能不足,而且这会阻碍国家间的文化交流。

所以国家间的文化外交活动中,绝对需要这种文化见识突出的民间存在,在这方面需要与民间部门紧密合作。同时,文化创意性和表现比起国家的介入,大部分都是民间自发动机,民间的力量比什么都重要。从这个角度来看,民间将起到填补或代替国家执行的外交当中不足的部分。

换句话说,即使民间的作用很重要,但绝对不是作为与国家完全不同的主体,设定独立的外交目标并执行的意思。



文化外交对这个国家的经济增长也起着重要作用。这是因为文化的属性上, 这种文化外交对出口一个国家的文化商品做出了巨大贡献。尤其是随着互联网和移动技术的发展, 这种文化的消费量大大增加, 消费的方式也变得非常方便。

例如, 包括K-POP在内, K-电视剧、K-Beauty、K-游戏等 多种韩国大众文化作为外交手段也发挥着非常重要的作用, 但在经济方面也带来了许多成果。

具体来说, 在新冠肺炎肆虐的2021年, 韩国的内容出口额超过了14万亿韩元, 创下了历史最高纪录。这比前一年增长了4.4%。这一规模远远超过了韩国主要出口产品家电、二次电池、电动车、显示屏等。由此可见, 这种文化产品具有巨大的经济效益。

我们已说了21世纪是文化世纪。这就是文化如此重要的意义。冷战结束后, 随着全球化的快速发展, 国家间的文化交流也迅速增加, 特别是交通和通信的发展很强烈地推动这种现象。因此文化的影响力大大增强, 文化的影响力成为这一国力的重要因素。如果以我们所知道的领土、人口、资源等硬性资源为标准, 韩国绝对不可能成为强国。



但是, 如果以文化、价值、人力资源等软性资源为标准, 韩国已经算是文化强国了。想想韩流的影响力就可以了。与此相关, 有一个短视频叫做2021年的K-POP世界庆典。先一起看这个视频吧。

从视频中可以看到, 无论是在哪个大陆, 全世界的人狂热于K-POP。这种现象对韩国国家形象的提升也做出了巨大贡献。那么将21世纪称为文化世纪还不够吗?



文化、文化外交、公共外交

1-6

公共外交的重要性与文化交流

最后, 让我们谈谈公共外交的重要性和文化交流。

2022年, 韩国国际交流财团对5000名普通市民 进行了“2022年公共外交公众认知度调查”。

调查结果显示, 首先, 10名韩国公民中有7人 认同公共外交的重要性和目的,
约69%的受访者回答公共外交政策的期待效果有助于提高国家形象。

另外,回答"了解公共外交"的比率也达到了约44%, 可见国民对公共外交的关注度大幅提高。

国民对公共外交的关心增加这一事实意味着公共外交正在显示出如此大的效果。因此, 全世界主要国家非常重视这一公共外交, 并积极利用。那么, 让我们通过几个国家的公共外交事例, 了解一下其他国家是如何执行什么内容的公共外交的。

首先是美国的公共外交。之前在说明公共外交历史的时候提到过。美国也是现代公共外交概念的发源地。而且美国也是最有效利用公共外交的国家。特别是在2001年9/11事件之后, 这种公共外交作为应对全球反美主义 作为新的外交模式,正在进一步加强公共外交。美国为了维持以美国为中心的国际秩序,正在运营对美国友好的舆论形成、自由主义、人权、民主主义等 扩散这些普遍价值的项目"Fulbright"和国际领导人项目等。

接下来是日本。日本为了摆脱现有的军国主义形象 和摆脱1970年代以后经济发展过程中出现的"经济动物"的负面形象, 树立仅次于经济实力的文化地位和魅力形象,正在利用公共外交。

1990年代以后, 日本政府将文化外交作为日本三大外交轴心之一。具体来说,他运营着"Japan Hands"或国际交流基金等项目。

接下来是中国。中国自1978年实行改革开放以来,经济增长很快。中国应对这种经济发展带来的中国危险论, 发表了责任大国论和和平崛起论等, 为了扩散对世界和平做出贡献的形象, 正在积极推进公共外交。而且2010年作为主要对外战略,采纳了公共外交。具体项目有孔子研究院和孔子学院等。

接下来是法国。法国是发达国家中最先开始文化外交的国家, 也是投入资源最多的国家。具体来说,通过2010年战略方向委员会和2011年法国研究所, 执行综合性的公共外交。尤其是, 法语的传播是一个重要的外交目标, 并且正在通过名为“法国联盟”的项目不断努力。除了这些主要国家外,德国、英国、加拿大等国家也 高度重视公共外交。而且作为外交的重要部分,正在积极利用。



那么韩国的情况如何呢？韩国首先宣布2010年为公共外交的元年，正式投入公共外交。

而且,韩国政府将公共外交与政务外交、经济外交一起提升为大韩民国外交的重要轴心,确认了其重要性。

而且,目前通过178个驻外公馆,考虑当地的习惯、文化、外交关系等展开双向公共外交。尤其负责韩语和韩国文化普及的世宗学堂正在扩大,象征韩国大众文化的韩流可以说是韩国公共外交的核心。

前面也提到过,韩国在物理性国家规模方面很难与美国、中国、日本等强国相提并论,因此只能更加强调公共外交。由于这些努力,韩国得以成为文化强国。

那么,为了帮助理解韩国公共外交的现状,让我们观看一段短片

主持人:新型冠状病毒危机促进的新常态时代,外交也在迅速变化。特别是,由于长期保持距离,超越国境进行沟通、打动人心的外交的重要性越来越大。在全世界共同克服危机的今天,让我们去在各种挑战中创造新机会的外交现场吧?与受新型冠状病毒影响在网上举行的2020年不同,2021年国庆招待会缩小了邀请对象,并适用了法国保健通行证,举行了面对面活动。这样的场合是介绍和体验韩国文化的公共外交的好机会。

聚集这么多人的理由是？ 这是为了体验韩剧《鱿鱼游戏》中登场的游戏。被介绍的游戏不是分胜负,而是通过游戏感受到亲密感,让彼此更加亲近的传统游戏。成功了！ 通过活动,参加者们通过观看韩国电视剧,进一步了解了好奇的韩国文化。

由于2020年新型冠状病毒导致的封锁,芬兰很多公馆 以非面对面的形式举行了全年最大的活动国庆招待会。阿根廷韩国文化院主办的第12届中南美K-POP大赛中, 阿根廷、巴西、墨西哥等14个国家的221支队伍参加了比赛。2021年是韩国加入OECD25周年。如果介绍韩国电影,大部分观众都知道这是韩国电影。在亚洲最先给人留下了深刻的印象。

欢迎光临2021年辛奇艺术节。迎来第一个辛奇日, 韩国驻洛杉矶总领事馆官邸举行了辛奇庆典。不仅是吃辛奇, 一起腌制和分享是韩国人的认同感的重要因素。我觉得辛奇有辛奇独特的味道。可能是因为我喜欢辣的食物, 辛奇真的很好吃。



2021年光复节之际, 埋葬在哈萨克斯坦的 独立英雄的遗骸回到了韩国。"为了祖国的独立而献身一生的洪范图将军的归来, 我感到非常荣幸。 从现在开始, 大韩民国空军将安全护卫。 必胜。"

洪范道将军的遗骸奉还是从很久以前开始, 凭借与哈萨克斯坦的关系及 说服高丽人同胞社会的外交力量取得的成果。

为纪念德国统一25周年, 2015年在波茨坦广场建立的 "统一亭"亭子被搬迁至韩国大使馆庭院。

对于之前经历过分裂和统一的德国人来说,这是对分裂的痛苦产生共鸣, 重温和平意义的时间。

2020年5月,为了共同应对因新型冠状病毒而加深的厌恶和歧视, 在大韩民国外交部的主导下,与11个联合国教科文组织成员国一起 成立了“为了连带和包容的世界市民教育”友好集团。大韩民国的外交活动是为了共同克服新型冠状病毒, 扩散国际社会联合和包容的信息, 守护民主主义和和平、人类共同价值而迈出的步伐。为了增进与全世界市民的友好、团结和合作,通过多种创意和 革新内容进行沟通的大韩民国公共外交的 进化仍在继续。

张英德教授: 正如视频中所示, 您可以看到即使在新冠病毒大流行期间, 韩国的多元文化也受到全世界的欢迎。这能说是韩国文化的强项吗? 像这样,包括韩国和美国在内的主要国家都非常重视公共外交, 并通过公共外交努力扩大本国的文化影响力。而且, 为了有效开展公共外交, 各国正在尝试通过多种方式进行文化交流。文化不像水一样从高处流向低处的单向性的。



从“交流”一词可以看出，文化具有相互影响的双向性。就此而言，如果说狭义的文化交流是艺术产品、表演、传统工艺等作品的交流，那么从广义上讲，文化交流是通过多种行动，在日常生活中对信息、价值、规范等产生相互作用。

那么为什么这个文化交流很重要呢？首先，文化交流是指促进不同文化之间的接触和相互了解的各种活动。过去，不同文化的接触和传播，主要是通过扩大国家间政治、经济或军事上的支配和被支配关系。另一方面，现代概念文化交流是指承认各种文化之间基本的平等性和相互性，是指为在国际社会和平稳定发展，形成国际文化共同体而开展的各种活动。这里重要的是这种文化交流承认平等性和相互性。文化交流没有等级秩序。

文化外交在这方面很重要的另一个原因是，在高度全球化的现代社会中，只坚持自己的文化生活已成为不可能的事情。当然，即使不考虑目前的情况，人类早已通过交流其他文化来发展自己的文化，因此，这种文化交流对人类的发展 also 具有重要意义。



第二, 文化交流可以提高对对方的理解程度。从公共外交的定义来看, 公共外交是通过与外国国民的直接沟通, 扩散我国历史、传统以及文化、艺术、价值、政策、展望等共识, 通过确保信任来增进外交关系。这里我们要关注的就是需要公共外交和直接沟通跟外国国民。与对方沟通意味着公共外交不会停留在单向传递上。因为沟通是双向的, 不是单向的。其他国家或其他民族的人也有各自的文化和情绪, 因此只有理解和认可, 才能进行文化交流, 才能与外国国民直接沟通。因此, 文化交流是促进这种相互理解的一个重要因素。

第三, 文化交流是一个国家社会发展和国家间交流的必然过程。此外, 由于文化交流是实现一国政治和经济目标的手段和工具, 文化交流也是国家间政治交往的重要渠道。韩国和中国在悠久的历史中不断进行着多方面的文化交流。韩国和中国正在以这些文化交流为基础开展对彼此的公共外交。因此, 观察韩国和中国之间的多种文化交流, 不仅仅是回顾过去的文化交流事件, 而是确认当前韩中文化交流的意义, 为两国关系朝着更好的方向发展提供洞察力。此外, 两国间的文化交流在激活东北亚区域内文化发展的层面上也具有重要意义, 因此更需要考虑两国之间的文化交流。



文化的意义大致可以分为 狭义的文化 和 广义的文化 两种。狭义的文化是指用于文学或艺术领域的相关意义, 广义上文化是指在一个社会共同出现的独特生活方式, 社会成员通过后天学习共享的行为方式和思考方式等。软实力是为了得到期望结果而影响对方行动的能力, 可以说是一种魅力, 让对方按照自己的意愿行动的能力就是软实力。

公共外交是指通过与外国国民的直接沟通, 扩散我国历史、传统、文化、艺术、价值、政策、展望等共识, 以确保信赖, 增进外交关系而提高我们的国家形象和国家品牌, 在国际社会上提高我国影响力的外交活动。另外, 文化外交是指政府机构或政府机构委任的机构 对象其他国家的政府和国民, 以艺术、知识、信息、语言、制度等为手段, 增进相互理解, 提高本国国家形象等, 提高这种软实力的活动。现代观念的文化交流是指承认各种文化之间的基本平等和相互性, 为国际社会的和平稳定发展和形成国际文化共同体的各种活动。

今天第一节课简单介绍了文化和公共外交、文化外交。非常感谢您到目前为止参加第一周的课程。



기타학습요소



〈퀴즈〉

1. 문화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는 culture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화의 어원은 무엇일까요?

2. 문화인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람이 후천적으로 학습된 행위나 공통된 생활양식
- ②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생활양식
- ③ 식사를 할 때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
- ④ 어른을 보고 인사하는 행동
- ⑤ 개인적인 취향이나 습관 또는 버릇에 의한 행동

3. 다음 서술에 대해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시오.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물질문화와 비물질문화로 구분할 수 있다.

4. 문화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는 누구일까요?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5. 소프트파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프트 파워 개념을 처음 소개한 사람은 미국의 조지프 나이(Joseph S. Nye)이다.
- ② 하드파워의 반대개념이며 연성권력(軟性權力)이라고도 한다.
- ③ 소프트파워는 군사력, 경제력, 자원 등 상대의 이익을 위협하여 강압하는 능력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방식이다.
- ④ 조지프 나이는 소프트파워를 정신적 가치, 문화, 외교정책의 세 가지 실제적인 형태로 분류한다.
- ⑤ 한국이나 기타 제3세계 국가들 같이 중소 규모의 국가에 더욱 가치가 있다.

6. 다음 공공외교에 대한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시오.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냉전 중인 1965년으로, 당시 미국의 전직 외교관이자 터프츠대학(Tufts University) 플래처 스쿨의 학장이었던 에드먼드 걸리온이라는 사람이 '에드워드 머로우 공공외교센터(Edward R. Murrow Center for Public Diplomacy)'를 설립하면서부터이다.

토론

1. 기생충, 오징어게임 등 한국형 콘텐츠의 인기도 문화외교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을까요?
2. 문화외교는 전통문화에만 적용이 될까요?
3. 콘텐츠의 생산은 민간 영역에서 더욱 활발한데 그럼 문화외교 영역에서 정부의 역할은 축소되고 있는 걸까요?

〈참고영상〉

- ‘공공외교’ 이야기를 시청해 보세요.

https://youtu.be/dwZ5bwfx2cU?si=bBaFDp_CeXln0ceG (21:09)

<https://youtu.be/eXfkcpstzX0?si=FhUT2f6mNEoRm0gg> (06:15)

<https://youtu.be/x1COsPleC5k?si=Hxf6f7pgGJbUXwY-> (03:06)

- ‘K-Culture’ 이야기를 시청해 보세요.

<https://youtu.be/z48aTWwzUAE?si=d0OlnyY7SyrIgtDy> (11:13)

- ‘문화외교’ 이야기를 시청해 보세요.

https://youtu.be/QQgQ_Y4oTg?si=gkLaR--mrkJBRgCD (20:54)

